

C씨는 째째게 웃을 베풀었다. 그러나 팬츠만은 벗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자 “다 벗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알몸이 된 C씨는 L자 형태로 누운 채 다리를 올리고, 취조요원들은 발바닥을 때기 시작했다. 그는 그 아픈 견딜 만했으나 옆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공포심이 더했다고 한다. 계속 지하서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취조담당요원은 “이 정도는 약과다. 지하실에 내려가 전기고문을 받으면 고생할 것 다하고 결국 불게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C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지하서클에 가입한 한 후배의 이름을 대며 “너 알지”라고 기습질문을 했다고 한다.

취조요원이 질문한 그 이름은 한 공개서클의 이름이었는데 마침 후배이름과 일치했다. C씨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후 C씨는 지하서클에 가입한 날짜, 인맥, 세미나 내용 등을 자포자기 상태에서 소상히 밝히게 된다. 다음날 취조는 다시 시작되었다. 세미나 내용 선후배관계 활동사항 의식화내용 등을 모조리 쓰기 시작, 4일 동안을 꼬박 쓰고 고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단 조사작업이 끝나자 고위급 간부가 와서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훈시한 후, 순화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6일째 되던 날이었다.

“너는 간첩은 아니지만 간첩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군법 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봐줄테니까 잘 협조하기 바란다”

취조요원은 이렇게 말한 뒤 국가관, 통일문제 등에 대해 소견을 쓰게 한 뒤 C씨가 자신들의 논리를 따르도록 유도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기도 하지만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C씨는 순화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끝났으나……

보안사본실에 들어간 지 2주 후, “그동안 고생했으니 호텔같은 데서 좀 쉬다 가라”는 말을 들은 뒤 지긋지긋했던 보안사본실을 C씨는 떠나게 되었다. 눈이 가려진 채 승용차에 합승한 C씨가 끌려간 곳은 서울 종로 4가 세운상가 뒷편에 있는 모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들어간 집은 사복차림의 일반기간병 1명이 상주할 뿐 여느 가정집과 똑같았다고 한다.

하룻밤을 자고 난 C씨에게는 충격적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바 프락치가 되어달라는 것.

“지금까지 반성문도 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학생운동은 일종의 이적행위인데 네 친구들이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너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정말 그렇다면 증명을 해야 한다. 학생친구들을 만나보라. 그들로부터 학내 동향을 듣고 와서 보고하라. 너는 혼자 나가기 때문에 너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항상 너를 지킨다. 탈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를 믿고 보낸다. 잘하라.”

시내로 나온 C씨는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를 4번 갈아탔다. 맨 마지막에 내리고 맨 마지막에 타는 행동을 계속 반복, 미행자를 떨쳐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 길로 C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군대로 강제징집된지 얼마되지 않아 집에 나타난 자식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불안의 눈빛을 보내는 가족에게 C씨는 군대에서 근무성적이 좋아 포상휴가를 받았으며 안심시킨 후 하룻밤을 잤다. [영원히 깨어나기 싫은 잠]에서 깨어난 C씨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야했지만 죽어도 가기 싫어 전날 밤에 전화했던 친구 K군을 학교 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그는 몇가지 학생활동 계획을 K군으로부터 들은 뒤 경찰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갖고 모아파트로 돌아가 보고했다. 이날 C씨는 서약서를 쓰고 마침내 귀대하게 된다.

사단보안대에서 2박3일 편하게 지낸 C씨는 소총수로 전방에 배치, 철책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C씨는 산을 내려오면서 굴러 떨어졌다. C씨는 그렇게 되기를 속으로 원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찢겨진 C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특별휴가를 1주일 받았다. 사단보안대 모 증사는 서울 모아파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서울가서 연락하라고 했다. 서울에 도착한 C씨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연락, 한 다방에서 먼저번에 자신을 취조했던 요원을 만났다. 그 요원은 C씨를 모아파트로 데리고 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S대 시위요주의 인물인 K,O,Y군을 군에 입대시켜야 되겠는데 그놈들이 미리 알고 도망을 쳐버려 잡을 수 없다. 너의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찾아 보고하라’

두 번째 프락치 공작

서술이 퍼런 요원의 표정에 주눅이 들어 일단 앉았습니다.고 대답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C씨는 지난 7월 첫 정식휴가때 나와, 같은 서클 친구, 선후배들을 수소문해보니 지난번 취조때 자신이 이름을 댄 사람들이 이미 수배되어 소위 ‘도발이’ 중인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 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꼬나붙이

되어 친구들을 배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집에서 5일을 보냈다. 학교에는 한번도 가지 않고 정 답답하면 창경원등에 가서 배회하기도 했다.

5일후, C씨는 다시 모아파트에 들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들도 모른다더라는 식의 거짓보고를 올렸다. C씨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태업을 시도했다는 것. 그들은 몹시 신경질을 내며 고함을 질렀지만 C씨는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보고가 전부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호소, 겨우 모면했다고 한다.

특별휴가가 끝날 무렵 C씨는 집에서 귀대신고만 하고 도주하듯 자대로 복귀했다. 그동안 C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대상임을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 이후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고 그는 제대한다. 83년 말부터 유화국면이 되고 군에 강제징집된 6명의 죽음이 대학가와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녹화사업’의 기세가 수그러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C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의 체험을 정리했다.

‘제대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군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의연히 대처하지 못했는가는 처절한 패배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나 내삶이 격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일념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은 치욕적인 나의 경험을 보상해야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불태운 셈입니다.’

5.17직후 끌려간 K씨의 경우

K씨(30세, 서점경영)는 80년 5.17 당시 지방 G대학의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이었다. 5.17 전국 계엄령 확대실시 때 학교에 군이 진입했으나 마침 외부에 있어 연행되지 않았다. 그후 계엄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80년 5월 30일 전북부안의 어느 콩나물 공장에 근로자로 취직해 있다가 전주 보안대로 잡혀갔다. 사단소속 보안대 지하실에서 1주일동안 학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받고 한달동안 헌병대의 영창생활을 했다.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생활해야 했으며 보안대로 끌려가 조사 받을때는 군화발에 온몸이 짓이겨져야만 했다.

한달간 조사가 끝난후 석방되었으나 3일만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8월17일자로 학교에서 제적통지가 왔고 신체 검사도 없이 9월 4일 강제입대된 것이다. 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은 K씨는 경기도 연천부근의 한 포병부대에 배속된다. 특수학적 변동자로 낙인이 찍힌 그는 데모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사들에게 구타당하기도 했으나 잘 견디어나갔다.

그러나, 83년 1월 느닷없이 포대 본부에서 휴가증을 끊어줘 나가보니 정문 앞에서 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단 보안대에 도착한 K씨는 그곳 조사실에서 녹화사업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낱이 다 쓰라고 요구, 3일 정도 걸려 백여매의 ‘강제 자서전’을 쓰게 된다.

대학시절부터 특히 상세한 기술을 요구, 생각나는 것은 모두 쏟아놓아야 했다. 대학시절 시위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방화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의식화 과정, 조직적 연계를 캐물었다. 자술서를 쓰다가 앞 뒤 문맥이 틀리거나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발가벗기고 권총으로 위협,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구타, 몽둥이 세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야 했다.

놀라운 일은 K씨가 평소 동료 사병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미 상세히 보고되어 있었다. 한번은 K씨가 동료사병들에게 농담조로 ‘때려잡자 김일성’ 구호는 몇 십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데 좀 세련된 구호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던 것이 이미 보고되어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철저히 감시당했던 것이다.

취조방향은 K씨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K씨는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일단 ‘빨갱이’로 규정된 것이다. 그때부터 K씨는 자기해체과정을 겪어야 했다. 국가관, 민주주의에 대한 K씨의 평소 소신은 깡그리 몽게지고 그들의 논리에 따라 ‘의식을 바꿔나가야’ 했다. 월남전의 성격에 대한 평가, 백기완씨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대공계장은 주로 언급했다.

일단 조사가 끝난후 술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K씨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발언을 무심결에 해버려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달반동안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주로 군내부에서의 발언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 중간중간에 ‘한민족의 용트림’ ‘김일성 정치비사’를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다시 구타, 권총 위협 등이 계속됐다. 결국 똑같은 책을 7번 읽고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모조리 암기하게 되자 각서를 쓰게 했다. 이제까지 생활을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K씨는 이것을 ‘자기해체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녹화사업은 인간을 파괴

그후 1달반 정도 지나 보안대에서 한소영이 와서 보안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했다. K씨가 소기의 목적대로 순화된 것으로 판단, 이제는 더 이상 움직임에서 생활하지 말고 밝은 양지에 나와 일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K씨는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겠다. 고사를 하고 싶으니 제발 봐달라' 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보안대에서는 그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프락치가 될 것을 요구했다. '너희 동료들이 어둠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 ▲ G 대 지하유인물을 가지고 오라 ▲ 친한 친구들이 어떤 조직에 가입했으며 활동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 대학의 지하서를 조직계보를 파악해 오라.

'이것을 해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마지막 부탁이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활동해도 좋으나 끊임 없이 관찰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친구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K씨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휴가를 나온 K씨는 고민 끝에 공개유인물을 몇 장 입수하고, 한 친구와 상의 끝에 이미 공개된 교회 조직의 계보를 파악, 귀대후 보고했다. 보안대에서는 '이것밖에 조사 안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큰둥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1주일에 한번씩 만나 계속 의식 상태를 체크해 가곤 했다고 한다.

그후 K씨는 보안사와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다짐을 받고 제대하게 된다. 제대후 학교에 복학한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심적 고통을 겪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가 85년 학내시위 때부터 다시 학생운동에 나섰고 그후 재야운동에 참여,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녹화사업이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인간을 파괴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녹화사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K씨의 말이다. '83년 강제징집된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84년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보안사는 녹화사업을 일단 포기하고 심사과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로 84년 경부터 강제징집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4년부터 특수학적 변동자들을 공식해체했으나, 입영복부중인 기존 인원과 강제징집된 학생은 아니나 문교부가 이른바 '관심지도 대상자'로 분류한 운동권 학생으로서 입대한 사병들에 대한 관리 및 순화 업무는 타처로 이관되어 계속되었으며 녹화사업은 한결 완화된 형태의 선도업무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87년에 일어난 김용권 사망사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권군도 프락치 강요당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떠들썩했던 87년 2월 20일경, 미군카추사 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권군의 경우도 일종의 '녹화사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당국과 NCC인권위에서는 자살이나 타살이냐는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NCC의 김상근, 김동완 목사와 류태선 간사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구류를 살게 된 이 사건은 유가족의 '타살됐다'는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군군법회의의 시체부검결과 자살로 인한 질식사로 결론이 났다.

군부대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김군이 정신병 경력이 있고 병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하나, 가족측에는 김군이 인척인 보안대 추봉엽상사에게 고문당했다고 진술, 사인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군의 경우 자원입대했지만 운동권 학생으로 지목,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김용권상병 의문사건'에 대한 조승형, 김상철 변호사의 1차 조사보고서중 군보안대와 관련된 부분이다.

▲ 조사결과

김군은 86년 8월3일 포천군 소재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상사의 요청으로워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추상사로부터 군복을 벗고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 노릇을 하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울러 민민투 83학번 수배자의 소재를 대달라는 제의와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탓으로 보안대 근무자로부터 사정없이 구타당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과 본건사망과의 사이에 분명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확인사실

프락치 활동권유와 83학번 민민투 관련자 소재수사(가족, 친구주장)로 86년 8월 8일 14시 1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포천 보안대에 체류하였음.

8월 3일 직후 5일경 종로5가 인근 지역으로 김군이 어머니를 불러내어서 추상사로부터 프락치활동을 권유받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추상사에게 어머니가 프락치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적이 있느냐'고 물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자 매우 격분하여, '추상사 그 자식 야비한 놈, 나를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함. 그후 어머니를 만날때마다 '추상사를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병원을 출입사

는게 다 추상사 때문입니다.'라고 반복 했음.

홍태룡(제2공병안 44대대 중대 2소대)의 진술서에 의하면 '용권이 9월쯤 포천에 친구 면회간다며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차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동안 발가벗긴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이번 사건후에 들었다'고 함.

김군사망 후 허병화(카추사로 근무경력이 같음)는 얼마전에 김군이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달락하고 있는 처지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김군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함.

위에서 언급된 사실을 미루어보면 김용권 역시 녹화사업이 변형된 일종의 프락치 공작 대상자였음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김군의 모친 박명선 여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생전에 용권이 그러는데 포천 보안대에서 추상사가 용권을 닦달하자 곁에 있던 두 장교급 사람들이 뺨먹을 것 다 뺨먹었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녹화사업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남용,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 자체에 대한 회의를 조장,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녹화사업의 전체상이 제대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진상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강제징집당한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감당키 어려웠던 정신적 육체적 상흔도 회복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혼비 복구대회에 참석했던 고려대 이상신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설사 군에 강제징집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했다 해도 그것은 죽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영향력 있는 학생들을 분리 이간질 시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처넣었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에도 책임이 큼니다. 어린 학생들이 군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시대가 저지른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제징집 실태 보고서

고대제적학생복교대책위원회
1984년 3월 8일

서론

반의세,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이 땅의 학생운동은 1980년 5월17일 이후 모진 시련을 딛고 더욱 더 성장하여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의 쟁취를 위하여 굳세게 싸워왔다. 어떠한 탄압도 정의의 사를 사하며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는 믿으며, 80년 이후 학원탄압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학원을 억눌러온 강제징집 문제를 파헤치고자 한다. 1971년 교련반대운동 당시 위수령 선포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학생을 군으로 끌고간 이후 정부는 소위 강제징집을 자행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학원탄압의 도구로서 호도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언제 군에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대학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80년 이후 학칙개정을 통한 지도 휴학제도의 확립과 이를 이용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징집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입대한 민주학우들을 인간외적 상황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강제징집은 학교와 경찰 그리고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실시하는 조직적 학원 탄압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불의의 옥고를 치른 학우들을 또다시 강제 징집하려는 정부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 자행된 강제징집의 실태와 이로 비롯된 우리의 학우 김두황군의 죽음을 파헤쳐 강제 징집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

1. 지도휴학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79년 10월 각 대학 학칙에 지도 휴학 조항이 신설되었다. 고대의 경우 학칙 제 23조 2항에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장의 제의에 따라 총장이 직접 휴학에 처할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바로 이 조항이 민주 학우들의 강제 입영을 합법화 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고 있는가?
그것은 총장도 학부모도 학생 자신도 아닌 학원 사찰기관이다. 소위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사람 혹은 시위에 단순 가담하였거나 구경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과 협박 아래 자원 입대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는 곧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고 지도휴학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 휴학조항이 학내 민주화운동과 학원의 자율성을 근거에서 말살하기 위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폭력적 조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지도휴학제도의 희생물이 된 학생들은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배움 권리를 빼앗긴 채 군대에 끌려가 특별 학적 변동자로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한다. 더욱이 이 지도휴학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조직적으로 활용되어 '문제학생'들을 학기중이나 방학기간 중에 무더기로 입대시키는 놀랄만한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배움 권리를 무시한 채 학생들을 죽음의 위협속으로까지 몰아넣는 이 지도 휴학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허구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원 정치의 시너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휴학제도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

2. 강제 징집의 유형별 분류

강제징집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1.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지도 권고 휴학을 당하고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2.시위에 단순 가담했거나 구경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3. 83년 2학기에는 시위 주동 학생도 구속 대신 강제징집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지도 권고 휴학 당하고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우리 고대의 경우, 82년 12월 성정환(철학3), 83년 2월 이강조(식물보호3) 83년 3월 김두황(경제4), 양창욱(사회4), 그리고 83년 여름방학중 소위 17인 사건등이 있다.

17인 사건이란 83년 여름방학중 학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제학생이란 지목 명단을 작성하며 지도 교수를 통해 군입대를 권했던 사실을 말한다. 83년 8월 10일경 이들은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군입대 권고를 받았거나, 학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하였다. 이들은 학생처장과 이 대담을 통해서도 군입대 문제를 학생 자의에 의한 것으로 하고 학내 활동을 하지말 것을 권유하였으며 군입대건의 출처를 말하기를 꺼렸다.

이들후 해당자 7-8명이 차후의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다음날 비민주적 강제징집 조치의 철회와 아울러 차후의 강제징집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 연서하여 학생처에 제출했으나 반려 되었고 8월말경 4명의 동의 형식 군입대 조치 됨으로써 이문제를 매듭지어졌다. 이 한가지 사건만으로 보다하여라도 심각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학교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이고 또 법적인 죄를 짓지 않은 학생들을 마음대로 학업을 중단케 하여 군대에 보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시위 단순가담으로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83년 5월 26일 교내 시위 당시 교내에서 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강유성군(사회학과4년)은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사복형사에게 무단 연행되어 경찰에서 일주일씩이나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강제징집 당했다. 이들이 강제 징집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할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 아래 스스로 군입대를 원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쓸 것을 요구 받으며, 이러한 강제적 폭력적 수단으로 각서를 받아낸 경찰은 학교에서 사후 지도 휴학을 시킴과 동시에 가족과의 면회도 시키지 않은채 그대로 군입대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시위 단순 가담자가 모두 강제 입영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입영대상은 씨클원이나 학회원일 때 또는 형사가 얼굴을 알고 있거나 문제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을 때 대부분 군대를 보낸다. 이를 보면 군입대를 학원 탄압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예) 82년 11월 2일 학생의 날 시위에서 진창원(법학3)의 2인
- 83년 4월 15일 시위에서 이상기(경제2), 채정상(경제1)
- 83년 5월 18일 이재구(사학3), 조항익(사학3), 오동건(사학2), 권주(사회1)
- 83년 5월 26일 강유성(사회4), 박기정(사학3), 하행민(경제4), 박홍렬(철학2)
- 박채규(정외2), 손희심(경제2), 이현찬(농경3), 이정록(경제1)
- 83년 11월 2일 홍윤기(중문1), 김정우(독문2), 김창현(사회3), 이정철(사회1)
- 김희성(사학1)

(3)시위 주동학생이 강제징집 당한 경우

한편 83년 2학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제학생이나 시위 단순가담자 뿐만이 아닌 시위 주

동도 또한 강제 징집 당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80년 5.17 이후 연이은 구속으로 재감 학생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의적인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2년 6개월이라는 긴 군복무 동안 끝없는 특별교육과 고문을 통해 민주적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로 학원탄압의 수단으로 구속보다 강제입영이 더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탄압이 훨씬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 경우로는 83년 9월 26일, 교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이재현(철학4), 강제형(중문4), 안순중(건축2) 83년 11.17 시위 주동 혐의로 정용화(영문3), 박은홍(사학3)등이 있다.

3. 중요 사건별 분류

81년 11월 문무대 사건과 83년 5월 축제건으로 인해 강제징집 당한 숫자는 엄청나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총 120여명이 불법적 피해를 입었다. 다음은 사건의 요지이다.

(1) 문무대 사건

이는 1981년 11월 9일 병영집체 훈련에 참가한 100여명에 달하는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이 강제징집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인권유린 사태들이 이 땅위에서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이고 스승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문무대 사건의 발단은 훈련장에 모인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를 시간에 교가를 부른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스피커의 불량으로 초대해 어수선한 상태에서 대열의 뒤에서 부터 시작된 교가가 점차 퍼져갔던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스피커의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든, 어린 학생들의 단순한 의사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도대체 이러한 행동이 28명은 제적되고 80여명은 권고휴학으로 강제 징집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무대측도 그 당시 학교측의 중재로 이 사소한 충돌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고 학생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훈련을 끝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떠도는 소문은 7명이 권고 휴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실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에 학생들은 소문의 진상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서명작업을 했으며 아무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던 군당국과 학교측에 중재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학사일정을 단축,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자신들의 행동에 어떠한 계획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생각없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방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12월 중순경 엄청난 소문이 온 학교에 퍼져 나갔다.

즉 100여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문무대에서 벌어진 사소한 충돌로 인해 제적과 휴학을 당한채 강제 징집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헛소문이었을 바랐던 것과 달리 이러한 소문은 급기야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런 소식도 모른 채 고향으로 내려가 공부하던 학생들은 갑자기 날아온 신체검사 통지서에 따라 신경을 받은지 며칠도 되지 않아 하나 둘 강제 징집 되었다.

방학때라 서로 떨어져 있던 학생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왜 끌려가는 지도 모른채 아무런 대책도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강제 징집으로 인해 정든 학원과 가족과 친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돌이 있은 후 학교측의 중재과정 중에서 그 당시 학생처장으로 있었던 지동식 교수는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자고 하여 아직 나이어리고 흥분하기 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킨후 그 대화를 녹음하여 학생들이 강제 징집에 회생되는 증거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교수가 그런일을 할수 있으며 학생들이 이 시대에 강제 징집에 회생되는 증거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교수가 그런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 사건서 가질 수 있는 불만들을 스승 앞에서 토로한 것이 어떻게 강제 징집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 사건은 109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속수 무책으로 강제입영되는 결과를 낳아 이후 학교 당국과 군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어 82년 3월 24일 교내시위로 매듭 지워 질수밖에 없었다.

(2) 83년 5월 축제건

83년의 석탑축제는 과거의 쌍쌍파티, 가수초청 공연등에서 나타나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축제의 성격을 벗어나 학도호국단의 주축 아래 민족 문화의 창달과 대학인의 올바른 학문자세를 모색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축제였다. 축제가 끝난 후 고대의 모든 학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학의 축제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였다'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이

었다. 그러나 학교당국과 성북경찰서는 축제과정에서 있었던 자연 발생적 시위를 빌미로 하여 서클회원과 학회회원을 불법 연행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축제가 끝난지 7일 후였다. 이미 7일이 지난후였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의 잔혹한 고문은 저들의 진의가 축제건을 구실로 하여 소위'위험인물'을 학원에서 추방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더욱이 6일간의 물고문, 통닭구이, 매달기 등에서 나타난 저들의 수사방법은 인간을 개취급하는 정도를 벗어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잔혹한 것이었다.

3명의 구속, 10명의 강제징집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83년 석탑축제는 학원의 탄압을 위해서는 폭력과 투옥 그리고 강제징집의 세가지 수단이 상호보완적으로 자행될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강집자 명단 김희근(경제4) 신성환(법3) 호박회 회장
문택환(농학4) 김기홍(사회3) 현대철학회 회장
최창환(경제3) 신동익(통계3) 홍중학(철학3) 인문학 연회구회장
김종각(경제3) 문학연구회 회장
유중승(영문3) 경제 철학회 회장
진현철(철학3) 기독교학생회 회장

4. 강제징집된 후의 군생활은 어떠한가?

강제징집된 학우들은 입대하자마자 바로 '특수 학적 변동자'로 특별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인 동향보고의 대상이 되고 빈번한 특수교육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받는 등 일종의 사상범 취급을 군으로부터 받게 된다. 게다가 특별휴가를 통해 재학시 절친했던 학우들의 용태 파악을 요구 받는 등 군인이 아니라 정보 수집요원으로 이용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집된 우리의 학우들은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어, 심한 경우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거나,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가공할 사실인가?

단지 학원에서 민주화를 열망하여 이를 외쳤다는 이유로 사찰기관에 의해 학업을 중지 당한채, 군으로 끌려간 것도 부당한데, 사상범으로 취급받으며 특수교육과 반성문 제출, 더욱이 고문까지 받아야 한다니 군이 감옥을 대신한 사상범 수용소란 말인가?

또한, 재학시의 친구를 통해 정보수집을 강요하는 특별 휴가조치는 인간이 지닐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짓밟이는 과렴치한 작태이며, 군이 학원사찰에 깊숙히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짐작 살수 없는 일인 것이다. 다시 한번 천명하거나 강제징집된 우리의 학우들은 결코 사상범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특별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다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학원탄압의 도구로 활용되는 불행한 사태를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5. 누가 김두황을 죽였는가?

1983년 당시 경제학과 4학년 재학생이던 김두황군은 83년 3월 경찰에 의해 강제징집 당한지 석달도 채 못되어 사망통지와 함께 한중의 재가되어 돌아왔다. 그는 영원히 복학할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김두황군은 79년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에는 경제학과 1학년 대표를 맡아 하는 등 학내 생활에 적극적이었으며, 83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두황군은 문체학생으로 지목,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간을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고문 속에서 자원입대할 것을 종용 받았다. 결국 김두황군은 사회학과 4년 양창욱군과 함께 자원입대서에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석방되어 집에 감금되었다가 이틀후 또 다시 성북서에 연행되어 그 다음날 곧장 군대로 끌려갔다.

김두황군은 석달도 채 못되어 죽어서 되돌아 왔다. 자살이라고 하지만 자살의 동기나 정확한 내막은 아직 확실히 납득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학 당시의 김두황군의 성실하고 든든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그의 자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때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김두황군은 여전히 밝고 열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곁에 있으리라는 것이다. 성북서를 통해서 강제 징집당한 경위와 문체학생으로 징집된 군대에서 받을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악조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위법적인 강제징집이 우리의 친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 결국 김두황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학교, 경찰, 군의 세기관이 동시에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여적것 받지 못한채 오히려 강제징집의 위협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6. 시행령의 개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학우들이 감옥 아닌 군에서 군인 아닌 죄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숨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새로운 강제 징집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1979년 '긴급초치 위반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이란 명목하에서 이미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자와 달리 군으로 끌고간 사실이 있다. 이때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다 다시 수감되기도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 10.26이 발발했고 그 후 병무청장이 정식으로 6개월 이상 실형을 복역한 사람은 징집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민화합의 미명아래 석방된 학우들이 신검과정에서 당연히 소집면제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유보로 처리되고 있다. 병무청 실무자는 판정유보로 처리된 사람들은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 징집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제적 학우들은 놀랍게도 징집영장을 이미 발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석방자들을 몸서리 치는 제3의 감옥인 군대로 몰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며 우리는 정부의 '화합조치'에 깊은 회의와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무를 학원단위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혀둔다.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강제징집된 수 많은 학우들이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특수교육과 고문 그리고 '관계 프락치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처절한 아픔이며 이 땅의 각박한 논리가 만들어 낸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 앞에 단지 눈물짓고 있을 수도 없고 냉엄한 현실앞에 주저하고 있을 수도 없다. 학원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정상화된 학원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우리 고대 제적 학우들은 지도 휴학과 강제징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983년 12월 21일 권이혁 문교부 장관의 학원 정상화 시책 발표에 따라 학원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사복 경찰이 학원에서 철수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학우들을 군대에 끌고 가 인간 외적인 한계상황에 시달리게 하고, 8명의 학우들을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몰아놓은 강제징집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자율화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다시 수 많은 학우들이 부모의 얼굴 한번 못보고 군대에 개 끌리듯 끌려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하는 처절한 비극이 이번 학기에도 벌어질 것이 자명할진대 어찌 학원이 자율화되었다고 할수 있는가? 민주화된 학원과 사회를 갈망하다 수감되어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받던 우리의 학우들을 또다시 군대에 끌고 가 정치 보복적인 이중처벌을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음흉한 흉계 일진대 어찌 '국민화합'이 있고 '사회정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폭력과 탄압의 수렁 속에서 학원이 공전되지 않으려면 또 다시 우리의 학우들이 학원을 지키려고 싸우다 피 뿌리지 않으려면 지도 휴학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강제 징집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학적 변동자'에 대한 군의 탄압도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어리석은 작태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비민주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김두환군의 사인을 명백하게 밝혀라. -강제징집된 학우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학교당국은 지도휴학제를 즉각 폐지하라.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지하라.
- 정부는 강제징집을 즉각 중지하라.

[의문의 죽음 사례 2]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의회

□ 정성희(21세)

- 1962. 6. 14. 출생.(사망당시 만 20세)
본적(인천시 중구 도원동 23번지)
현주소(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1동 617번지 이화아파트 1동 406호)
부(정낙현) 모(조경순)
소속부대명:육군 제7859부대 대대장 - 중령 최정식 중대장 - 대위 배신환
- 1981. 부평고 졸업.
- 1981. 연세대 영독불계열 입학.
- 1981. 11. 25. 시위관련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 1982. 11. 28. 강제징집됨.
- 1982. 1. 4. 차대배치. 이후 학원소요 관련자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음.
- 1982. 7. 23. 의문의 죽음을 당함.

강제징집 사망자 1호

- ▲사건일지
사망장소: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사단의 소속대 26번 철책초소.
사고일지: 서기 1982년 7월 23일 0시 10분경.
사고내용: 철책 초소 보조경계근무중 총기자살로 통보.
사고소식 입수시각: 1982년 7월 23일 오전 6시경
(연천읍 소재 모식당에서 모 군인이 전화로 통보)
사망통지서 입수 일자: 1982년 8월 초순경.
사고종교 접수후 현지도착상황:
1982년 7월 23일 오후 5시경 연천 모식당에 도착하여 사망 통보한 군인을 접견한 후 병참모부에 다시 가보니 "근조고 정성희"의 현수막과 빈수를 목격하였음.
▲군당국의 설명: 사고 현장은 최전방 민간인 통제구역인 이유로 현지 답사는 불가능하므로 간단한 도면 설명으로 "자살"임을 믿어 달라고 간청하고 군인의 사체는 군부속품으로 병참모부에 안치되었다고 하였음. 군은 부모로부터 부검포기서와 화장동의서, 사망사인에 이의없고 이후 법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는 각서등을 수사관이 받고 사체처리함.
사고총기의 개머리판 하단을 초소지면에 대고 상체와 팔, 다리는 약간 굽힌 채로 총구를 목 부분에 밀착시킨 후 자물쇠를 자동으로 위치하고 격발하므로서 연발로 4발이 발사되어 자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정지 및 심작정지(사입구-목부분 가로 5센티, 사출구-정두부 및 후두부 2개소)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
▲사고경위 청취내용: 군당국의 주장으로는 철책 초소 근무중 7월 23일 0시 10분경 총기자살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음.

유서는 없고 몇줄의 낙서 쪽지뿐임(또 백양로를 걸어보고 싶다. 죽음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 윤희(동생)야 네가 배운 지식을 가난하고 병들고 눌린자들을 위하여 활용해라)

▲사고당시 목격자의 증언청취 내용:

사망당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제 2학년 학생인 임동구군이 전방훈련으로 나와서 죽은 정성희군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죽은 정군이 임동구군을 보고 말하기를 "형씨는 참 좋겠네요. 이제 전방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면은 학교도 다니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와서 전방근무를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낙인이 찍혀서 취직도 잘 안될테고 하니 참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함께 초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에 총소리가 나서 옆에 가보니 총으로 자살하여 죽었다고 말하였음.

▲성장과정: 은행에 재직 중인 아버지와 교편 생활하는 어머니 사이에 1남 2녀중 외아들로 태어나 주안지역에서 거주. 국민학교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에 뽑힐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때 부터는 남달리 독서를 많이 하여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였고 비교적 과묵하고 조숙한 편이었다.

그의 일기에서 보면 고등학생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감수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학교생활: 고 3시절 대학입시 준비에 바빴던 시간에도 틈틈히 많은 문학작품과 철학책들을 읽고 문학, 철학, 사랑, 장래의 이상, 종교, 신앙, 진리, 영화, 팝송, 고전음악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인식을 정리하여 시와 단상의 형식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신문, 월간지 등을 읽으며 시국, 민주화, 언론 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정성희의 일기 중에서

그 나라의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은폐할 때 그 나라 국민은 무지에서 비롯된 소극적이며 이기적이고 또한 근시안적인 무기력한 국민이되어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책임을 완수치 못했기에 현 시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1980년 5월 8일 일기)

대학생들의 데모, 계엄령 철폐요구, 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자체촉구, 전국적인 데모파급, 계엄령확대, 26명 인사 연행.

▲대학입학후(연세대 영,독 불문계열)한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 입학(3월) 후 8개월 학교생활후인 11월 25일 교내 시위 현장에서 20여명 동료가 연행되어 그중 15명이 강제징집당함.

교내시위에서 연행당한 다음날 학생처장 주장에 의하면 20여명 연행된 학생중 에이, 비, 씨로 등급 구분하여 에이 급은 제적, 비급은 무기정학, 씨급은 유기정학으로 학사조치에 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입대하게 된 동기:

일차 문무대 훈련당시 시위선동. 노래 선창으로 문교부 리스트에 기록됨.

▲사망후 부대의 조치:

연천 병참모부로 도착하여 첫번째로 보인것이 "근조 고 정성희"라고 쓴 현수막과 빈소였다. 군 당국의 담당자는 사망당시를 도면으로 설명하고 총기 자살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목격자(당시 조선대생)를 면담시켜 주겠다고 한후 여러시간후 최전방에서 방금 도착되었다 하며 동행하였는데 목격한 임군은 총소리 이외에는 아는것이 없다고 함구 하였음.

그후 사체 확인을 요구하여 빈소에 있는 관을 보여줌. 검은색 관 뚜껑 위에 태극기를 접어 얹어 놓았고 뚜껑을 열어 보니 작은 관에 키가 큰 사체의 고개를 꺾어 입관 하였는데 얼굴은 부었으나 깨끗하였고 코는 솜으로 막고 목 부분에는 검은 색 천을 덮어 놓았으며 군인 작업복을 입히고 비닐로 싸서 비닐끈으로 묶어 있었다. 관 전면에는 확대한 고 정성희의 사진까지 세워 놓았다. 유가족의 자살 동의서 날인후 간단한 영결예배를 마치고 고양군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인천으로 돌아왔다.(고 정일병의 외삼촌, 고모부 동행)

■ 이윤성(20세)

- 1964. 1. 3. 출생.
- 1981. 경기도 졸업.
-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 입학.
- 1982.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직을 맡음.
- 1982. 11. 3.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11월 7일 강제징집됨.
- 1983. 4. 30. 운명.

제대 8일전에 목매달다니...?

<사건경과>

1982년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부 회장직을 맡아 활동중 같은 해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11월 7일 강제징집. 그 후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음.

<의문점 및 참고사항>

이윤성군은 예식장을 경영하시는 양친 슬하에서 5녀 1남중 3대 독자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국민학교 때는 학급에서 반장을 맡는 등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명망한 성격을 지녔으나, 스스로 리더쉽이 부족하다고 느껴 웅변반에 들었고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발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의지가 강하였다.

1981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한 뒤에는 진리탐구에 남다른 열정을 품었고, 자신의 주변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전반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창생활에 임했다고 한다.

2학년 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씨클의 회장직을 맡았고 평소 유복한 가정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군은 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에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고령(60세가 넘음)이신데다가 3대독자이고 시력이 나빠 보통의 경우에는 현역입대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83년 1월 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면회갔을 때 이군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짬밥을 제일 잘 먹고 있으니 걱정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고 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제대 일자가 얼마남지 않았던 5월말경 이윤성 군의 부모님은 군당국으로부터 이군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군이 북한에서 날려보낸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가지고 있었던 일로 죽음 직전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목을 매어 죽었다고 통보했다.

■ 김두황(24세)

- 1960. 6. 23. 서울에서 출생.
- 1879. 마포고 졸업.
- 1980. 고대 정경계열에 입학. 경제학과 과대표.
- 1982. 3월말까지 학회활동을 주도
- 1983. 경제학회 학회장.
- 6. 8. 학생운동 관련 성북서에 연행되어 3월 18일 강제징집됨. 보안사의 '녹화사업'도중 6월 18일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함.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

<사건경과>

유서(필적 감정한 유서와 내용이 다르다)

곧

가정편
 1. 학교 생활
 2. 학교 생활
 3. 학교 생활
 4. 학교 생활
 5. 학교 생활
 6. 학교 생활
 7. 학교 생활
 8. 학교 생활
 9. 학교 생활
 10. 학교 생활

1. 학교 생활
 2. 학교 생활
 3. 학교 생활
 4. 학교 생활
 5. 학교 생활
 6. 학교 생활
 7. 학교 생활
 8. 학교 생활
 9. 학교 생활
 10. 학교 생활

1. 학교 생활
 2. 학교 생활
 3. 학교 생활
 4. 학교 생활
 5. 학교 생활
 6. 학교 생활
 7. 학교 생활
 8. 학교 생활
 9. 학교 생활
 10. 학교 생활

평소 필적(유서의 필적과 다름)

겨울방학 과정에 83학년도 5월의 고대 축제와 6월의 학내 장학생장 선거를 준비하는 소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각 학과 대표 10명 정도 모여 축제와 선거를 놓고 토론을 벌이며 그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참석했던 학과의 대표는 아니었지만, 그 연고로 학칙위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것으로 1983년 3월 8일 ~ 15일 까지 성북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근에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외란 가족과 친구는 못 만나고, 2주일 정도 근에 오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근에 근대생활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의 근대생활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1983. 5. 6

작성자 김두항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한 유서

1. 학교 생활
 2. 학교 생활
 3. 학교 생활
 4. 학교 생활
 5. 학교 생활
 6. 학교 생활
 7. 학교 생활
 8. 학교 생활
 9. 학교 생활
 10. 학교 생활

(同筆蹟)
 1. 학교 생활
 2. 학교 생활
 3. 학교 생활
 4. 학교 생활
 5. 학교 생활
 6. 학교 생활
 7. 학교 생활
 8. 학교 생활
 9. 학교 생활
 10. 학교 생활

김두항 군은 유복한 집안의 3남 3녀중 3남으로 태어나 1980년 고대 정경계열에 입학하여, 항상 명랑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았다. 학내활동은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 하였으며, 뛰어난 유머와 기지로써, 또한 세심한 배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우 관계도 좋았다. 특히 3학년 때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3학년 말, 82년도 학내활동을 반성, 평가하고 83년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과대, 정경대, 사범대, 경영대 등의 당시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83년도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방향 성과 대안 등을 계획하던 중, 83년 3월 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다른 학생의 일로 조사할 게 있으니, 곧 풀어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7일동안 고초를 당하고 3월 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시간 호텔에서 18일 아침까지 동료와 함께 3명의 형사들과 동숙하였다.(부모님들은 다른 방에 계셨다.) 18일 아침에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보충대에 입대했다.

성북 경찰서에서의 그의 모습은 멍멍했으며, 그곳에서 조차도 유머를 잃지않고 같이 조사를 받던 동료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양창욱(사회학 80)군도 함께 강제징집을 당하여-자진휴학이라는 형식으로-당시 강원도에서 근무중이었다.

김군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1983년 3월 18일 입대하여 6월 18일 운명일까지 약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 번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가족들이 알고 있는 바는 훈련소에서 훈련성적이 우수 하였으며 사단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그의 낙관적인 성격과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한편 같은 경우로 강제징집을 당한 모군의 경우를 보면 입대 후 군수사 기관에서 10여일간의 조사를 받고 학내활동의 조직상황 및 각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또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학내활동을 했던 과나 씨클의 친구, 학회의 후배 등의 동정을 조사 보고 할 것을 강요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누설치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에 주둔하는 학교 담당 요원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위촉되고 고뇌에 가득찬 표정으로 말하기도 했다. 입대 후에 계속 반성문과 기타 시대관, 조국관 등 유사한 보고서를 써야만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군수사 요원을 만나는 것이 크나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강제징집을 당한 경우 거의 예외없이 강요되는 이런 사정을 볼 때 특히 김군의 경우, 고대 학생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 한다면 군수사기관의 김군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김군의 운명일시는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이라고 한다. 6월 19일 새벽에 군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으며 사고현장에 가족(형님2분, 매형2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라고 한다. 당시의 현장 정황에 대해서는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김군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 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 후 나가서 잠시 있다가 총성과 함께 자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군수사대는 김두항군의 가족에게 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화장동의서를 받아낸 뒤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군의 유품으로는 볼펜과 사진 한 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가 주머니에 있었다 한다.

그런데 김군이 운명하기 10-15일 전에 집에 보낸 편지에서 "시계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가 평소애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것 같지 않다. 또한 사고 1주일 쯤 전에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이는 그의 신념을 볼 때 '자살'이란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낙관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춘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자살이라는 현실 도피를 생각했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군에서 밝히고 있는 자살동기는 특수학적 변동자로 강제 입대하여 전방에서 비행근무시에 매일 6-7시간, 에이형 근무시는 20:00-익일 05:30 경까지 근무를 하는데 대한 불만과 자신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노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으로 인한 복무염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군에서 유서라고 주장한 '끝'이라는 시와 필적감정시 사용된 유서 '끝'과 내용이 상이하고 군에서 제시한 평은 필적과 유서와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

■ 한영현(22세)

- 1962. 3. 1. 출생.
- 1981.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교내 씨클 민속문화연구회에 가입, 대학연합 민속문화연구회와 야학도 함.
- 1983. 4. 2. 강제징집.
- 7. 2.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경위 및 의문점]

한영현군은 한양대학교 기계과에 재학했던 학생으로 81년도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대학 1학년 때 민속문화연구부에 가입하고 선배와 함께 탈연합회에서 활동하였다. 82년 민속반이 학교의 방해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친구들과 소그룹을 형성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였으며 82년 탈연합회의 선배 소개로 부천에서 야학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83년 1월 중순경에 부천의 야학에서 활동한 선배의 조사과정 중 한군의 이름이 나오자 성동경찰서는 그를 끌고가 조사를 하면서 구타를 가했다. 조사후 4월 1일 수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나 늑막염이라는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병종을 받아 군대를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경찰서에 오라는 소식을 듣고 나가 행방 불명이 되었다. 2-3주 후에 한군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자 가족들은 그때야 비로서 한군이 강제로 군에 끌려간 것을 알았다.

한군은 입대 후 훈련소에도 가지 않고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 진술해야 했다. 당시 도망다니다가 5월 9일 시위를 하여 조사를 받던 한 동료의 말에 따르면, 조사중 한 수사관이 영현이가 똥물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군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돌려주고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5월에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형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한군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있으며 군생활에 인내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6월 초에 친구에게 몇 번이나 면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조사가 시작되어 심기에 불안울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6월 18일에 포상휴가를 나왔는데 한군의 팔에 철사로 심하게 맞은 듯한 피

멍이 선명했다고 한다. 휴가중 한군은 "정신력으로 모든 환경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자신이 없다." "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며 81학번 뿐만 아니라 72학번까지도 여파가 미치는데 아마 커다란 배가 침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형에게 "기관의 어느 사람을 만나면 의가사로 10월이면 제대가 가능하고 잘하면 10월 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수도 있는데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관원이 누구이며 만났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집된 학생의 고초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귀대후 7월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통보가 와서 형님이 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

자동으로 연발 사격했음에도 사입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6월30일 밤에 분대장으로부터 탄환을 흠쳐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나갔으나 조금 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시체를 확인해 보니 두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한 군이 가정 파탄을 비판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나, 아버님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그가 죽기 3년전인 고 3때의 일이며 대학입학후의 그의 건강한 생활태도와 행적을 볼때 그의 죽음의 직접적 계기가 될수 없다고 판단된다.

■ 최은순

- 1981. 경기고 졸업.
- 1981. 3. 동국대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입학.
- 1983. 3. 29. 시위예비음모로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조사 후 강제징집.
- 1983. 8. 14.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경위]

학생운동에 헌신해 오던 중 83년 3월 29일 시위예비음모 혐의로 5명의 학우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1주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 당했다.

83년 8월 14일 군에서 집으로 급위독이라는 전보를 보내와 가족들이 급히 부대로 가보니 동생은 벌써 이날 새벽 4시께 숨을 거둔 뒤였으며 시체는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헌병대에서 나온 자가 자살이라고 통보하여 이에 가족은 자살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강력히 항의, 영안실의 사체를 1주일간이나 지키며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군수사대는 재수사를 하여 그 결과 고참병과의 말다툼 끝에 피살되었다는 수정통보를 얻어내어 최씨는 자살이라는 오명은 벗고 대전 국군묘지에 안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른 강집 의문사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씨 역시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군다나 최씨와 같이 운동에 헌신하고 군대를 혐오하던 사람이 장기하사관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더욱 그의 죽음은 결코 자살일 수도 고참병 누구의 총에 맞아 죽지도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의문사항]

1.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재수사하여 타살이라고 번복한 점(가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의문사 희생자들의 경우와 같이 자살로 끝났을 것이다. 최은순씨의 '사인번복' 사실은 자살로 발표된 나머지 사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도 의문은 더해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가해자의 타살동기가 사소한 언쟁 끝에 오발에 의한 사고였다는데 일반적으로 고참과 졸병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된 사고사는 고참이 졸병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졸병이 고참을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 따라서 그의 죽음에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보안대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가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 한희철(23세)

- 1961. 2. 1. 경남 마산에서 출생.
- 1979. 2. 철도고 졸업.
- 3.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입학(철도청 장학생).

1982. 12. 1. 군에 입대.
1983. 12. 11. 의문의 죽음을 당함.

한희철은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학년 재학중에, 1982년 12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본부 부관 참모부에서 근무하다가 1983년 10월 14일 1차 정기휴가를 15일간 받아 귀가하여 집안일과 친구 만나는 일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외국어 대학교 데모주동자였던 학생 김무현군을 만났다.

그당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던 때인지라 수배중인 운동권학생들이 도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도와주기로서는 합의하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 전봉일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자신이 쓰고, 김무현이 전달하기로 하고 헤어진 후, 한희철은 휴가기일이 다 끝나 귀대하였다.

김무현은 편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갔으나 전봉일을 만나지 못했고 채방문을 마음먹고 있던 중에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때 편지가 발각되어 한희철도 동년 12월 6일 부대 근무중 보안사령부로 연행되었다.

한희철은 군부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으며 입대 전 학생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약학연합회 사건 관련 혐의로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5일 동안 취조를 받고난 후 12월 10일에 석방되어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였다. 부대로 복귀한 그날 동료인 이모군에게 고문당했을 때 생긴 대퇴부위의 상처를 보이며 "전기고문을 두 번이나 당했다"라고 말한 후, "나는 이제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다음날(12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한희철은 부대내 문서 보관창구앞 보초서는 자리에서 가슴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간 부친이 그날 오후 5시경 부대에 도착했을 때 시체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고 고급장교 45명이 부친을 맞이하여 사망경위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5사단사령부 문서보관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던 중 자살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보초섰던 사병이 발견했다는 유서를 건네주었다. 부친이 그것을 받아 본 즉 편지가 3매에다 쓴 장문의 유서였는데 그를 요약하면 작별인사와 민주화 촉구, 경제정의의 실현 촉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이었고 죽음의 원이니 될만한 비판이나 고민 같은 것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부친이 장교들에게 "혹시 희철이가 보안대에 불려갔다는 일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중의 본부대장은 일주일 전에 보안대 요원이 신상기록카드를 보고 간일이 있는데 희철이가 왜 보고 갔는지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하여 그러겠노라고 한적은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부친이 영안실로 가서 시체를 확인한 바, 가슴에 3발의 총탄자국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손은 굵은 밧줄로 염을 해놓았는데 보기가 흉할 정도로 손등이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약간 부어 있었다. 비통함에 잠긴 부친은 더 이상의 세밀한 조사를 못하고 그날밤 몇십명의 장병들과 나팔수, 소총수가 동원된 장례식에 참석하고 난 후, 태극기로 덮인 관을 군용 엠블런스로 벽제 화장터에 옮겼다. 그리고 장교들은 다음날(1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가족이 화장터에 와서 시체를 인수, 처리토록 하라고 하였다. 부친은 다음날 군중 신부님을 오시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그들은 쾌히 승락하였으므로 시체를 화장터에 둔채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음날(12월 12일) 아침, 부친은 친척과 함께 화장터에 도착한 후, 11시가 넘도록 신부님 오기를 기다리다 부대 담당자들의 독촉과 성화에 쫓겨 다급하게 화장을 하고 말았다. 그때 장교들은 의도적으로 부친의 부탁을 군중 신부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3회에 걸쳐 부대를 찾아가던 부친은 진상규명을 해보려고 애썼으나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 별 진전없이 의문에 싸인 채 지낼 뿐이었다. 그러다가 서울의 각 대학생들의 주최로 열린 홍제동 성당에서의 "한희철 100일 추모제"때 배부된 "강제 징집 진상보고서"를 보고서야 의문의 실마리를 잡게 된 부친은 보안사령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부친은 한희철이 보안대에서 5일동안 조사받은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끝내 부인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두가지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하나는 일단 머리를 깎고 군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전 학생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삼지 말고(녹화사업 등),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다른 사람에 있어 의문사인 경우 유서를 조작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부대 고급장교들이 사망자가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허위 대답을 했다는 점, 셋째 그들이 한희철이 학생활동에 있어서 지도자급임을 알고 한달내에 제대한다면 녹화사업에 지장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제거할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넷째 부친이 세번이나 부대에 가서 진상을 물었을 때 한결같이 답변하기를 꺼렸다는 점, 다섯째 보안사에서 취조와 고문한 사실이 석방된 한희철을 통해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해 미연 방지를 쓸 수도 있다는 점, 여섯째 3발의 총탄자국이 삼각형을 이룬 것은 단발로 쏘았을 때 가능하며 연발로 쏘았을 때는 위로 직선을 이룬다고 여러 경험자들이 말한 점 등이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살되었을 가망성이 높으므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사법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살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몰고 갈만한 극한 상황을 만들게 한 보안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희철이 사망 직전 동료에게 건네준 YMCA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취조를 받을 때 고문당한 것은 물론 협박과 앞으로 전개될 일의 확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몸과 정신이 건디어 낼 수 없어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에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한희철은 군부대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종료 후 가정비판(모친의 가출, 동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하였다.] (국정감사 때 제출한 정부측 자료)고 하여 비관자살이라고 결말지었다.

이는 참으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녹화사업은 중단되었으나 보안사의 공작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 김용권(24세)

1964. 6. 10. 출생.
1983.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1985. 카투사 자원 입대.
1987. 2. 20. 1.2m 정도되는 침대 난간에 목이 메인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됨.

1. 사건개요

1983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용권 동지는 1985년 10월 카투사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의정부 소재 캠프 인디안에서 복무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2월 20일 오전 10시 50분경 자신의 막사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김용권 동지의 목은 탁자위의 전기스탠드 끝으로 이층침대 난간에 매달려 있었으며 얼굴은 침대 쪽을 향해 있었고, 하체는 풀어앉은 모양이었다.

한편 영등포에 살고 있던 김용권 동지의 어머니인 박명선씨는 그날 오전 10시경 부대로부터 김용권이 없어졌으니 급히 부대로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부대로 왔다. 박명선 어머니가 부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경이었으며 이때 아들 김용권의 시체가 막사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체에 대한 검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시체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마침 스내바에 있던 인사계(?)가 현장의 모습을 설명해주었으며 그에 따르면 김용권은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김용권 동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체로 발견되기 이틀전인 2월 28일이었다. 이 날 김용권동지는 자대를 오전 7시 25분 출발하여 용산소재 미8군 121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복용약을 받은 후 영등포의 자택에 들렀다가 오후 7시경 전철을 타고 귀대하였다. 가족의 입장에서 김용권동지는 8월 18일에도 자살할 만한 별다른 징후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남1녀의 장남으로서 집안에서 김용권 동지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김용권 동지의 자살소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김용권동지가 고문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또 시체가 발견된 날에도 몇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타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김용권동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문 및 의문의 사망에 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문폭력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김용권동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고박중철군 범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고김용권군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대응을 모색하였다. 이들 민간단체와 교회 등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2월 28일에는 고문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3월 3일에는 목사 김동환 등이 연행되고 즉시에 넘겨져 구류를 살기도 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적극대응과 아울러 박명순은 3월 3일 미8군 사령관에게도 진정서를 넣어 의문점을 통보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제기된 의문점들

김용권동지의 시신이 발견된 2월 20일 이래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은 2월 24일의 진정서, 각종 민간단체의 조사보고서, 성명서, 미8군 사령관에게 보낸 진정서 등의 문서에 나타나 있다. 이들 문서를 토대로 당시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으며 유서도 없다.

가장 먼저 문제로 된 것은 김용권동지의 자살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용권동지는 2월 18일 마지막으 로 집에 들렀을 때도 전혀 특이한 언동을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도 연대장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용권동지는 평소에도 즐겨 글을 써왔는데 유서도 한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 2월 18일 이후 행적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용권동지가 2월 18일부터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였다. 집에서 2월 18일 오후 7시경 귀대했는데 이틀 뒤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이상했다. 김용권동지는 2월 19일 오전 7시 30분의 아침조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일 식사에 준하여 약을 복용한 흔적은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또 한국 헌병대와 미 CIA합동조사에서 사망추정시간을 발견전 8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역산하면 사망시간은 새벽 2시이므로 김용권동지의 방에는 불이 새벽에 켜져있어야 하는데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김용권동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시체가 발견될 당일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어머니가 김용권동지가 안보인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는 출입기록부에 김용권의 부대복귀사인이 없다고 하였으며 막사도 살살이 뒤져 봤지만 김용권이 없으니 부대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부대에 도착해보니 아들 김용권 동지는 자신의 막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고 출입기록부에는 귀대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에 귀대시간을 적은 난을 보니 시간을 적는 방식이 나갈 때 이용한 시간기재 방식과 다르게 적혀 있고(나갈 때는 미군의 시간표기방식대로 0725로 표기되어 있는데 들어 올 때는 20:08로 기재되어 있음) 필체도 동일필체인지가 의심이 들었으며 귀대시간도 21시에서 20시로 고쳐져 있어 조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너무나 이상한 나머지 어머니가 부대에 찾아가 인사계의 먹살을 잡고 "바른 말을 대라"고 하자 인사계는 "윗사람 명령없는 바른 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3) 시체발견현장의 모습

우선 김용권동지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침대의 높이에 대한 진술이 들쭉날쭉하였다. 처음에는 1.2미터라고 하다가 후에는 1.5미터라고 하더니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니 2.6미터라고 되어 있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또 왜 이런 혼선이 생겼는가?

목을 매달았다는 전선줄의 매듭은 교수형때 쓰는 것처럼 사람이 매달리면 조여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더이상 조여질 수 없는 형태인데 이런 매듭에서도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더구나 끈을 매단 2층 침대의 난간이 낮아 무릎이 지면에 닿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리고 먼저 목을 디밀고 자신의 목과 침대를 묶어 목을 매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그와 같은 자세에서는 목의 뒷부분에 끈 자욱이 남을 수 없는데 끊어진 부분없이 선명하게 한줄로 나 있었다.(사진)

(4) 고문과의 관련성 여부

죽음의 동기와 현장의 정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가족으로서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국군보안대가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군입대전에 학생운동을 한 김용권동지는 군대에 와서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김용권동지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김용권동지는 1986년 8월 3일 포천군소재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 상사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추상사로부터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노릇을 하

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거절하고 나오려고 할 때 김용권동지는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가 83학번 민민투 관련자 소제수사를 받으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부대에 있던 홍태룡씨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홍태룡씨에 의하면 김용권동지가 8월쯤 포천에 친구한테 간다며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창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 동안 발가벗긴 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학교 1년 선배이면서 대학동창인 허병화씨에게도 김용권동지가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처지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김용권동지가 보안대에 다녀갔다는 사실은 1986년 8월 3일자 출입통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김용권동지는 이후에도 추봉업 상사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복수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고, 고문 때문에 허리와 고막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까지 그러한 프락치권유나 고문이 계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김용권동지는 보안대에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용권동지의 부모입장에서는 김용권동지가 자살했다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지만, 만의 하나 자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문에 대한 공포가 주요한 동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설사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추봉업과 보안대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용권동지의 가족들은 명확한 사인조사와 아울러 고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 김용권군이 군생활 중 남긴 글

1986년 2월 17일(월)

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몇일 연속했다. 쉽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니 하루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어차피 군대에 와서 대단한 것을 할거라곤 생각지 않았다. 육군보다 조금 좋은 환경이니 뭘 좀 해보려는 것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도피처로 택한 군대이지만 패배의식만은 오지 않았다. 권토중래 기간으로 삼겠다. 이제껏 강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천년 애련에 물들지 않는 바위'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강한 나, 그렇다고 굳어 있는 속박하는 내가 아닌 자유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한동안 이생각 저생각으로 괴로웠다. 이제 앞을 보고 뻗어 가야겠다. 마음속엔 언제나 태양을 담고 휴화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차분히 실력을 쌓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피어오를 그날을 위해 그날은 그간 가꾸어 온 모든 것들을 활짝 펼쳐 내보일 것이다. 아름답게 마틴루터링 목사에 대한이야기가 TV에 나왔다. 비록 말을 못알아들었지만 뜨거운 진실이 마음에 와닿음을 느낄 수 있다.

<나의 대학생살>

1983년 봄 나는 입학했다.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나는 부푼 꿈을 안고 향했던 것이다.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밝게만 생각되었다. 당시에 돌본 입학금관계로 위축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적어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3월초 찬수형으로부터 씨클 입학권유를 받았다. 나는 완강히 부인한다. 씨클-데모-계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로 나는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말쯤에서 무료한 시간들을 채워보고자 또 사람이 그리워 '세문'을 찾았다. 역시 사회과학독서회였지만 그런 것을 공부해보고 싶기도해 큰 부담은 없이 다녔다. 그 이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문제로 나는 몹시 고민했다. 교정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저이들은 무엇이 다른가? 행동을 강요당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며 나는 그곳을 벗어나려고도 해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은 현실적인 타격과 피해앞에서 무력해짐을 많이 느꼈다. 5월에 들며 나는 처음으로 시위를 나갔다. 긴장 속에서 보내진 몇 시간후에 이것저것을 겪고 떨림속에 유인물을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여러번 시위와 집회에 참가했다. 때로는 허상에 젖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여름으로 접어들며 농촌활동을 갔다. 학사경고를 두려워하며 보냈지만 이시기를 통해 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좀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진 것이다. 문제의식과 더불은 대책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개혁과 혁명의 논쟁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혁명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피와 혼란을 두려워했다.

■ 최우혁(22세)

1966. 3. 4 서울에서 父 최봉규, 母 강연임 슬하에서 3남 1녀중 막내로 출생.
1984. 서울대 서양사학과 입학.
대학 입학후 학생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시위관련으로 구류를

산 적이 몇번 있음.

1986. 5. 20 학내시위로 최루탄을 맞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음.
1987. 4. 28 군입대.
1987. 9. 8 부대에서 사망.

화염에 싸인채 장승처럼

[사건경위(군당국의 발표)]

군당국은 1987년 9월 8일 0시 50분경 육군 20사단 예하 60여단 최우혁 이병(서울대 서양사 84학번, 87년 4월 8일 입대, 상황실 근무)이 부대내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신하여 국군 덕정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사망시각 : 0시 50분 - 1시 30분 추정). 헌병대는 사망동기를 개인적 고민에 의한 자살이며 전신 화상과 점화 당시의 질식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서와 그에 준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군의 최근의 사망을 전후한 행적에 대한 발표는 다음과 같다.

7일 21:00 일석 점호를 할때 최군이 자리에 없어 동료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다. 그는 불침번에게 "나는 야간 근무 허가가 났으니 누가 물어 왜 없냐고 하면 그리 대답하라"고 말했다 한다. 0:15경 최군이 자판기에서 울무차를 빼먹는 것을 운전병이 보았고 이 시각 이후부터 0:50까지는 목격자가 없다.

0:50경 소각장에서 평하고 불길에 치솟는 것을 위병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고 달려가면서 보니 사람같이 서고 함을 지르고, 남은 1인이 일직 사령에게 보고하고 같이 뛰어갔다 한다. 달려간 사병을 서서 불타고 있던 최군에게 "뛰어나? 굴러라" 하였다니, 최군이 두어차례 굴렀고 자기는 잠바는 벗어 감쌌다고 했다. 2-3분 내에 전화가 끝났는데 그때 최군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일직사관은 최군을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1:30경 옮겼으나, 의사는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최군의 죽음의 원인이 '분신이 아님'은 다음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군은 처음에는 최군이 개인적인 고민으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유서도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군의 일방적인 장례식 이후 보안대 부관은 가족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렸다. 사망 일주일전 최군에게 2급 기밀문서 초안 30장중 15장을 정서하라고 지시했었다는 것이다(처음에는 복사를 지시했다고 하다가 최군의 형이 기밀문서를 마구 복사해도 되느냐고 묻자 황급히 정서하는 것이라고 바꾸었다). 그런데 최군이 실수로 그중 9장을 절삭처리해 버리고 질책이 두려워서 고민했었다라는 것이다. 최군의 형이 "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안대 부관은 장례식 당일인 그날에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기밀문서는 통상 1일 최소한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몰랐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발표의 신빙성 문제가 추궁되자 궁지에 몰린 당국은 갑작스레 최군을 무능함과 신약함에 비관한 졸장부로 만들려 했다.

또 한가지 그들이 황설수설하는 것은, 정보과 선임하사는 최군에 우혁군이 근무시간에 대공 서적(사회과학서적) 읽다가 보안대에 적발이 되어 선임하사 자신이 보안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보안대에 유가족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그들 사이에 말이 맞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군은 문책, 아니 더 심한 행위를 당했을 것이다.

최군의 유품중 대변이 손바닥만한 넓이로 굳은 팬티가 발견되어서 가족들이 매우 놀랐다. 이것이 심한 구타나 고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증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혁군의 갑작스런 죽음에 접한 가족들은 미처 이 증거물을 챙기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 속옷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소각해 버렸다고 하였다.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군의관 집도하에, 최군 가족이나 변호사의 참가없이 일방적인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최군의 왼쪽 손목에는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1센티미터, 깊이 3밀리미터 정도의 움푹패인 상처가 있었다. 이를 따지자 군은 최군이 사망 수시간 전 자해를 기도했다고 하였으나, 21:00 점호 때 손검사를 했을 때도 야간 근무 직전에 옆 동료에게 왼쪽 손목시계를 풀어 주었을 때도 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었다. 군은 나중에야 22:00-24:00 상황실 근무중에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를 했다고 했다. 흔히 손목 자해를 기도할 때에는 칼날로 동맥의 직각 방향으로 갖게 마련인데 실제 상처는 몽툰한 모양이며 무엇인가로 파넛듯하고 방향도 애매하다.

부검당시 최군의 내장은 깨끗이비어 있었다. 이는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었다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서 군은 최군이 먹었는지, 굶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군은 공동 식사를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최군

은 분명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 끼를 굶었다.

[군의 발표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문]

8일 0시경 근무가 끝나자 최군은 불침번에게 “누가 물으면 야간 근무 갔다고 그래라”며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고, 0:15쯤 운전병의 목격 이후 0:50 분신 시각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무반에서 소각장까지는 거리가 꽤 멀고 여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개 이동병이 화장실에 간다면 50분이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무반에서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군 당국은 최군이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를 상황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항상 4명씩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군이 휘발유통을 그것도 1.3리터 용량과 큰 통을 아무도 모르게 들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군은 0시 이후 이 통을 들고 내무반, 상황실 사이에서 왼쪽 끝 소각장까지 먼 거리를 걸었을 텐데 목격자는 없다.

부검 집도의인 육군 군의관은 최군이 점화 순간 많은 연기를 마셔 질식사였다고 했다. 그런데 사망 현장에서 진화했던 일직 사령은 진화후 최군이 “살려주세요”란 말을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질식사망은 허위이다. 그리고 뚜렷하게 말까지 한 사람이 이송도중 사망을 한 것도 의문인데, 이송 과정 최군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단장 및 군당국의 이상한 태도>

우선은 통례상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병의 사망사고(그것도 극단적인 자살)의 경우와 다르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다. 그 일례로 화장이 아닌 매장을 쉽게 승낙한 점과 여단장이 사비를 털어(140만원) 장지를 마련한 점이다.

그 여단장은 육사 24기 현 대령으로 익년에는 확실히 장군으로 진급할 사람이며 빠른 진급을 하였다고 한다. 최군의 사건으로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부관들이 입모아 걱정을 했다.

가족들이 5일장을 치르겠다며 냉동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최우혁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하느냐?”면서 원색적인 흥분을 했다고 한다. 또한 장례식은 친우들과 친지들이 점심 먹으려간 사이에 머뭇거리며 부모님과 일부만 앰블런스에 실은 채 장지로 떠나 버렸다. 이러한 60여단장의 출세조건과 군 당국의 태도는 최군의 사인을 규명하는데에 원천적인 장애물이었다.

최우혁 군의 죽음은 군 당국의 발표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분신 자살한 것이 아니다. 군 당국의 허둥지둥하는 모습 가운데서 각 사람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았으며, 의혹의 사실이 점점 드러나자 날치기 장례식을 해버리고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곤 했다. 대학시절 독재의 억압에 항거하는 스크림의 대열에 있었고 공장활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민중해방운동을 준비했던 최우혁 군은 피맺힌 한을 품고 죽었지만 우리는 결코 조잡하고 형식적인 군의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이 발표는 하나하나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최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의 비민주적 작태를 파헤쳐 단죄하는 것이다.

■ 우인수

- 1985. 성균관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입학.
- 1987. 2. 휴학.
- 1987. 9. 입대.
- 1988. 6. 20. 경기도 파주 소재 1사단 야영지에서 의문의 사고.
- 1988. 6. 24.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운명.

귀대 직후 훈련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데……

<사건 경위>

우인수 동지는 낙천적이고 명량한 성격으로 과학우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생회와 동아리의 열심히 하여 동아리회장을 역임하였고, 87년 2월 휴학후 막노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꼈다.

87년 9월말 입대하여 육군 제1사단 포병연대 58대대 1포대의 서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8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외박을 나와 같은 동아리의 선, 후배들과 음주하다가 귀가 후 19일 08시경 주소지인 서대문구 홍은 1동을 출발, 귀대후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단 의무대, 벽제병원을 거쳐 19일 20:00경 등촌동 소재 국군 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가료중 6월 24일 오전 6시경 운명하였다.

<의문사항>

군당국은 사인을 일사병이라 발표했으나, 20일 입원했음에도 21일야 가족들에게 연락한 점, 사체를 확인한 부모에 의하면 우씨의 명치 주위에 멍이들어 있었다고 하며, 사체를 옮기던 동료에 의하면 우씨의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심한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군대에서 운동권 학생에 대한 녹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보안대에 의한 녹화사업 도중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씨가 귀대전 동아리의 선, 후배와 만나 상당시간을 함께 술마시며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의심케 한다.

■ 남현진(22세)

- 1970. 2. 22. 경북 예천에서 출생.
- 대구 대건고 졸업.
- 한국의국어대 영어과 입학.
- 1988.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차장.
- 1989. 전대협 한라선봉대 용성총련 대표
- 1990. 11. 19. 군 입대.
- 1991. 2. 3.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

1. 사건일지

- 90년 11월 19일 논산 제2훈련소 입소
- 91년 1월 14일 논산 제2훈련소 퇴소(08주특기 받음)
- 23일 연대 배치(주특기가 08에서 소총부대로 바뀜) 10일간의 행적 밝혀지지 않음.
- 24일 자대 배치
- 25일 전방입소 훈련 떠남, 내무반에서 친구에게 편지 이후 이창호하사와 대화 나눔
- 2월 2일 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자대도착
- 3일 오전 10시경 교회를 다녀온 후 의무반에서 무릎상처를 치료받고 감기약 타감
- 오전 11시 30분경 한 일병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3-5인분의 빵과 음료를 사들고 있는 현진이를 목격
- 오후 2시 50분 부대밖에서 목을 맨 시체 발견

2. 의문점

08주특기(보안 및 정보요원) 받은 뒤 10일 후 소총수로 바뀜

▲ 남현진 열사의 키가 1미터 75센티인데 팔을 뻗치면 쉽게 닿을 수 있는 2미터 소나무에 자의적으로 목을 매 죽을 수 있는가?

▲ 훈련소 퇴소는 1월 14일인데 자대배치를 받은 날은 1월 24일까지 10일간 남현진열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사건현장은 부대 바깥이다. 그런데 내무반 생활 4일만에 신병이 어떻게 근처에 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철책 2개를 넘어 사건현장인 부대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 91. 1. 25일 내무반에서 이창호 하사(분대장)와 나눈 대화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의 적은 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갓 들어온 신병이 어떻게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군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속에서 남현진열사가 자대배치이전에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열사의 군생활을 잘 알고 있는 훈련소 동기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문점을 더하게 한다. 그들은 “군에서는 현진이가 전방입소 훈련을 사고없이 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현진이는 무릎의 상처 때문에 60킬로미터 행군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중에 쓰러지게 되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현진이처럼 08(보안 및 정보요원) 주특기를 받게되면 엄격한 성분조사와 기무사요원과의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가 결정됩니다”라는 동기들의 증언은 남현진 열사의 죽음에 기무사가 개입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다시말해 기무사가 남현진열사의 전력을 왜 조사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기무사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열사를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기무사는 남현진열사가 논산훈련소에서 08주특기를 받은 후 그가 재학중 총학생회 간부였음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기무사가 그의 전력을 알았다면 조사과정에서 가해졌을 많은 물리력과, 협박, 프락치 강요 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또한 훈련기간에 쓰러지게 된 원인인 무릎상처는 조사과정에서 행해졌을 물리력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군입대 후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가족을 면회할 때 여유있고 활달했던 현진이였는데 자기 키만한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죽기 4시간 전에 감기약을 타먹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먹을 수 없는 빵과 두유를 갖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가는 신병이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위 계급자와의 약속이나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1월 24일 이후 남현진열사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한다. 굳은 얼굴에 마치 무슨 일이 있던 것 같다는 동료의 증언,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유추 해석해야 한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문귀와 함께 심리적 불안이 가득한 상태의 편지내용은 뭔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1월 5일자 발송되지 않은 편지에는 유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동기생들이 사건 직후 감금되어 나타나지 않은 일 등도 의혹을 더해주는 것이다.

□ 송중호(24세)

- 1968. 9. 8. 경북 구미에서 출생.
- 1987. 3. 서울대 인문대 서어문학과 입학.
- 1988. 1년간 휴학, 고향 구미에서 생활.
- 1989. 복학, 학생회에서 활동.
- 1990. 7. 19. 군입대.
- 1991. 2. 20.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됨.

포병부대에 배치된 그는 동계훈련 기간중인 91년 2월 20일 새벽 3시에 Box car(이동식 상황실) 안에서 벽면에 합판으로 목이 조인 웅크린 자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군당국은 주장한다. 국당국은 처음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이후

안전사 추정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갑상선 부위의 혈종은 질식사라기 보다는 일시적 타격에 의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으며, 질식사일 경우 배변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고 오른쪽 등에 난 상처와 등과 손, 눈가에 난 화상흔적과 몸 곳곳에 난 멍이 해명되지 않는다. 또한, 함께 박스카 안에 있던 몇명의 근무자가 밖에서 아크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편지가 없어졌고, 수첩 곳곳이 찢어진 점으로 미루어 학내활동과 관련된 타살로 추정된다.

경찰, 사업주, 재단측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 오범근

1973. 후지카 대원전기 입사.
1976. 프레스공으로 작업중 왼손 엄지를 제외한 4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함.
당시 4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수위로 근무.
1988. 3. 10. 의문의 죽음을 당함.

오범근 동지는 산재이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야간 경비근무 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골수염으로 무릎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 등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부인 또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대원전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결핵에 걸리는 등 어려움이 겹쳤지만 항상 웃음과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극진한 효성으로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이웃과 동료들은 말한다.

사건 경과 및 의문점

3월 7일 "사직강요, 해고 위협, 어용노조 물러가라" "25% 임금인상, 학자금, 가족수당 쟁취하자"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으로 해산되자 10일 새벽 회사로 출근해 같이 근무하는 수위들을 만나 폭력해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측의 호출을 받고,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4층 관리자실로 올라갔다가 음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파업농성에 적극적으로 지지표명을 해온 오범근 동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이날 10시 20분경에 사망했다.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오범근 동지의 자살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 1) 유서가 없다. 자살을 사전에 생각했다면 유서를 남기기 마련이다.
- 2) 성실하고 깨끗하던 생활태도를 볼 때 자살할 만큼 의지가 약하지 않다.
- 3) 사망 당일도 구사대의 파업농성 파괴에 분노하면서 회사측의 호출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다녀온다고 하며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대책회의 중인 전무이사실에서 음독했겠는가.
- 4) 회사 측은 오범근동지가 평소에도 자살하려고 독극물을 갖고 다녔다고 하지만 한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시기가 지나면 독극물 등을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 5) 오범근 동지가 술에 취한 채 쓰러진 것을 병원에 옮겼으나 곧 사망했다는 경찰의 허위보고가 사망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증거이다.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오범근동지의 시신은 400여명의 전경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병원에서 고향으로 옮겨졌다.

□ 문용섭

1986. 10. 서울 동대문구 망우리 광무택시 입사.
1988. 6. 6. 의문의 죽음을 당함.
당시 가족사항 처 : 박춘애(46), 장녀(20), 차녀(15), 장남(12)

가난해도 의리의 사나이

사건 경위

지난 1988년 6월 6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리 소재 광무택시(사장 : 노명재) 운전기사 문용섭씨가 회사측이 키운 구사대의 한 사람인 신세일에게 맞아 동부 제일병원에 입원 중 6월 9일 숨졌다.

문용섭 기사는 구리시 교문리에서 부인과 3자녀(1남 2녀)와 함께 보증금 2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가난하게 살아 왔으면서도 몸이 아파 생계가 어려운 친구를 위해 집에 있는 쌀을 전부 퍼다가 주고 자기는 가족과 함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한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회사 관리자들에게 바른 말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동료들에게는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회사 노용복 부장과 노용운 과장 등이 힘없는 기사들에게 각종 구실로 돈을 뜯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함으로써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벌려 왔다.

광무택시는 사장 노명재의 조카들인 노용복 관리부장, 노용운 관리과장 등이 함께 운영하는 전형적인 족벌체제이다. 관리부장 노용복은 때로 문용섭 기사와 같이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는 기사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관리과장 노용운의 소개로 정경, 신세일, 김문기 등을 입사시켜 의도적으로 회사파 기사로 키워왔다. 그리하여 지난 5월 7일 서울지역 택시총파업 당시에는 정경, 신세일 등 입사 2개월도 안된 신입 기사들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동원(일반 기사들은 빌려 타기가 대단히 어렵다)하여 파업에 동참하자던 고참 운전기사들에게 '망우리 뒷산에 가서 이야기좀 하자'며 차에 탈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은근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노부장에게 대드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강패같은 회사파 기사를 구사대로 키워 기사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해 왔다.

노용복 관리부장과 노용운 관리과장은 스페어 기사들에게 돈을 건어오게 하고, 사고처리 하면서 돈받아 먹고, 생일날 축의금을 갖다 바치게 하고, 이사 비용 모자란다고 돈건어 오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들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사장이 삼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기사들을 아부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여 기사들로부터 양주roman 술을 얻어 먹는 파렴치하고 관리능력이 전혀 없이 봉건적 권위만을 내세웠던 자들이다. 문용섭 기사는 이러한 비리를 그때 그때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하겠다고 했으니 노용복 부장이나 노용운 과장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사건이 발생한 6월 6일 오후 근무조였던 문용섭 기사는 일을 나가지 않고 1,000원을 입금으로 잡아놓고 노용운 과장에게 '노부장과 회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게 2주일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이날 정경, 신세일과 함께 자기 집 이사를 하던 노부장은 노과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회사로 달려와서 포장마차에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문기사를 해고시킨다는 소문 문제로 문용섭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노부장이 포장마차에서 나간 뒤 같이 있던 정경과 신세일이 문기사에게 '자꾸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면 수범업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포장마차 안에는 신세일, 정경, 정승철(기사), 포장마차 아주머니 2명이 있었다고 한다.

말다툼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신세일이 담배로 문기사의 얼굴(코 옆)을 지켰다. 이에 문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세일에게 다가가자 신세일이 가격을 하여 문기사가 포장마차의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붙잡았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포장마차 문 밖 보도로 쓰러져 뒷머리를 보도에 부딪혀 실신하였다.

이상은 신세일, 정승철의 증언이며 정경은 술마시기에 바빠 보지 못하였다고 위증(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음)하였으며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고기를 굽느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의문사항

1) 문기사가 평소 곳곳하게 가사들 편에서 생활해왔기에 회사측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으며, 노부장의 비리에 매우 분개하여 둘사이가 무척 나빴으며, 사건 당일 갖고 있던 비리를 적은 수첩이 없어졌고, 노부장 노과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신세일(당시 구속중)과 정경(사건이후 회사 출근 안함)은 폭력 전과자들로서 한때 같이 복역하기도 했으며, 회사측이 노조를 폭력적으로 탄압키 위해 고용한 자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점.

2) 사건 현장인 실내포장마차는 문높이가 160cm가량이며 고인이 신세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는 천정에 단 판자 때문에 반드시 고개를 숙이며 다가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문밖으로 나가 쓰러진다 해도 엉덩이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인이 키가 183cm의 큰키이므로 뒷문 틀에 머리가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뒷문 틀은 손님들이 자주 부딪혀서인지 스티치로틀을 대어 놓았다.

3) 고인이 쓰러지기전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포장마차의 문을 잠갔었다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어 크게 다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4) 고인은 몸무게 94kg, 키 183cm의 거구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세일의 가격에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다.

5) 무엇보다도 고인의 부검시 모두가 의문시한 두개골의 가격점이다. 즉, 뒤로 넘어졌을 시 일반적으로 그 가격점이 머리 뒷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가격점은 머리의 가마부분에서 앞쪽으로 금이 가 있었다.

사고가 난 직후(8시경)부터 병원에서의 상황

문기사가 쓰러지자 신세일, 정경, 정승철 등은 문기사를 정승철이 타고온 차에다 신고서 문기사의 가방과 함께 망우리에 있는 제세병원으로 향했으나 제세병원 측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부제일병원으로 향하였다.

신고에 있어 회사측은 상무가 10(오후)시경 파출소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당일밤 11시 40분경 가족들이 신고하여 자정이 넘어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직후 부터(오후 8시) 자정까지 무려 4시간 가량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직후 문기사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였을 때 사고의 경위를 캐묻는 미망인에게 정경은 나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고아다'라며 미망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 댔다. 또한 고인의 처제가 노부장에게 "우리 형부가 '노부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노부장은 "그렇다. 언젠가 죽어도 내손에 죽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라."하며 일행과 함께 자리를 뒀다.

또한 정경과 신세일은 동부제일병원에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처럼 위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단순히 뇌일혈로 생각하였으나 수술결과 두개골 골절상이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축소, 단순한 개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협소화시키고 그마저 지연시킴으로써 진상규명과 반대의 길을 갔으며, 회사측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고 가족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배중손

대전 고등학교 졸업.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철리 산 32번지.

구미(주) 금성사 근무.

1988. 11. 14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 경과 및 의문점

유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조합하면 배중손씨는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술은 좋아하나 자제할 줄 알아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이며, 절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카톨릭 신자로 부인과 두 딸(5세,3세)과 함께 단칸 월세방에서 어려우나 성실히 살아왔다고 한다.

배씨는 97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회사측의 휴업조치 이후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파업농성과정에서 앞장서 싸웠고 구미의 원평성당에 있는 '국민운동본부'와 '카톨릭 근로자센터'에 혼자서 두어 차례 상담을 하러 가

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져 배씨는 부산에 있는 관리자와 함께 며칠간 강제출장(사실상 납치와 다름이 없다.)을 보내졌으며 부산에서 올라온 이후에 다시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장명목으로 납치되었다. 회사측의 출장명목은 전국의 아파트서비스 지점 순방이었고 출장코스는 구미 - 포항 - 울진 - 동해시 - 강릉 - 속초 - 거진 - 홍천 - 춘천 - 원주 - 춘천 - 원주 - 충주 - 청주 - 대전 - 구미 순이었다고 한다. 관례와는 달리 배씨에게는 출장비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돈을 꾸어 써야 했고 납치과정에서 배씨는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로 인해 연일 소주로 과음을 하여 9월초 쟁의가 끝난뒤 돌아왔을 때는 술자리에서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고 술잔을 든 손을 계속 떨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이런 배씨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변했다"고 했고 본인도 "내가 이상하니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10일간 대구의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배씨는 휴직계를 냈는데 회사측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원칙복직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약7개월 만인 5월 5일에야 복직이 되어 현장 재창고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건당일인 11월 14일 아침에도 웃으면서 출근하였는데 오후 5시경에 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관리자들이 찾아와서 배씨가 죽었다고 하면서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가자고 하였다. 부인이 영안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회사측에서 경찰을 불러 조사를 끝내고, 현장을 치웠으며 주변 동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끝낸 상태였다. 경찰은 부인에게 물으려 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 열쇠를 가져갔다. (영안실 직원 증언) 다음날 오전 10시경에야 사체를 보았을 때는 이미 깨끗한 모습이었다.

회사측의 얘기로는 12시 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4시경에야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비해 배씨의 동료인 남성택씨는 오후 2시 30분까지 같이 있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배씨의 동료들은 배씨의 죽음은 원천적으로 재벌대기업의 일반적인 노동운동 탄압책인 "납치극"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금성사는 고도의 노무관리로 배씨의 죽음을 유도했으며 배씨는 죽음 당일까지 인사과에 불려가 심한 문책을 당했다고 한다.

김용갑

1966. 2. 28. 강원도 홍천 회망리에서 아버지 김인수, 어머니 이정인씨 사이에서 2형제 중 막내로 출생.

1979. 동북중학교 입학

1981. 3. 대명고등학교 입학.

1989. 속초 동우전문대 양식학과 수석 입학.

1990. 동우전문대 학생회장 취임.

학원자주화 투쟁을 열성적으로 전개.

1990. 3. 28 새벽 2시경 의문의 사고로 운명.

타살 후 단순 교통 사고로 위장했다는 의문을 남김.

사건 경위

속초 동우전문대는 재단측이 폭력배를 '구학대'로 조직하여 학원내 민주적 요구사항을 폭력으로 압살하는 반민주적 학원풍토를 조성, 심지어 학생과 직원들은 재단의 지시대로 학원내에서 공공연히 폭력을 구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

김용갑 동지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학원내 비리를 척결하고 학원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재단측에 의해 고용된 폭력배들에게 수시로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회장 사퇴를 강요당해왔다. 또한 학생과 직원인 김진(33세)으로부터 "나를 배신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차로 갈아서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차로 받아 죽어도 과실치사로 6개월 밖에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남을 시켜서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학생들은 우연히 이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한다) 3월 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설악 유스호스텔에서 방에 감금된 채 집단폭행까지 당했다. 사건 며칠전부터는 학교측의 갖은 협박과 폭력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90년 3월 28일은 바로 동우전문재 최초로 세워진 자주총학생회 발대식이자 전면적인 학원자주화투쟁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다. 이것은 학원측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용갑동지의 죽음에 의문점을 더하는 것이었다.

사건 직전인 3월 27일, 김용갑 동지는 전날(3월 21일) 신입생환영회에서 난동을 부린 학생 5명과 만나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있다가 밤 11시 25분경 이들과 헤어진 뒤 다음날 새벽 2시경 좌측 다리골절, 턱부위 외상, 양사타구니 안쪽에 용혈, 왼쪽 정강이 부위에 눌린 자욱 등의 외상이 있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문종석이라는 자가 범인이라고 자수해왔으나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의문사항

1. 사고차량 행적의 의문점 및 범인이라고 자수한 문종석의 경위설명 중 의문점

- 1) 경찰에서 범인이라고 밝힌 문종석은 사건 이틀 후에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했으나, 대책위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노름빚을 갚아준다는 재단측의 약속을 받고 자수했다 함.
- 2) 문종석은 사고 당시 김용갑 동지와 부딪히면서 앞유리창과 백밀러가 파손되었다고 했으나 차체가 망치나 돌맹이로 인위적인 파손을 가한 흔적이 있음을 밝혀내자 사고 후 마산누님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앞유리와 백밀러로 교체한 후 자수하기 직전 원상태로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망치를 이용해 파손시켰다고 주장한다.
- 또한 당시 앞유리가 깨져 혼자 교체했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앞유리는 혼자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
- 3) 문종석은 사건 당시 동승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 목격자들은 승용차안에 3.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 4) 문종석은 당시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고 "끼익"하는 경적음도 없었다.
- 5) 문종석은 사고 후 차량을 속초시 교동 소재 로얄아파트 앞에 주차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6) 사고차량은 르망 신형승용차로서 보통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손이 일어나는데 사고차량은 70킬로그램 이상되는 성인과 부딪혔는데도 이렇다할 파손 흔적이 없었다.
- 7) 문종석은 사건 당시 전방 20미터의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들은 당시 문종석이 추월하려던 차량은 없었다고 한다.

2. 사고현장 및 시신의 의문점

- 1) 시신의 상태가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차렷상태로 있다는 점(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턱뼈가 으스러지는 등 교통이 심했을 텐데도 시신은 아무런 교통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반듯이 있을 수 있는가)
- 2) 범퍼로 받아 부러졌다는 주장에 비해 부러진 좌측 다리부분은 범퍼의 높이보다 약 10센티 높았다.
- 3) 구두가 모두 벗겨져 각기 시신을 중심으로 우측 신발은 시신의 후방 32m지점의 숲속에서 발견되었고, 좌측 신발은 전방 30m 지점에서 발견 되었다.
- 4) 시신에 신겨진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이것은 누군가 시신을 잡아서 끌어올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 5) 턱부위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한방울의 피도 흘려 있지 않았다.
- 6) 와이셔츠에는 두 줄기로 찢겨진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겨진 듯 예리하게 찢겨져 있었다.
- 7) 와이셔츠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으나 함께 입고 있던 점퍼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 8) 문종석은 고속으로 달리다가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현장에는 급브레이크시 나타나는 스퀴즈마크(타이어 자욱)가 나타나지 않았다.

3. 2시간 35분의 공백

문종석은 당시 사고시각을 새벽 2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용갑 동지가 폭력배 5인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11시 25분에서 그 시각까지 약 2시간 35분의 공백이 남는다. 동지가 동행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는 속초시 노학동 소재 마니또분식점 앞이었으며 그곳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불과 20여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지는 그 2시간 15분여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4. 한번도 가지 않던, 더구나 가로등조차 없는 음습한 도로변으로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지는 평소 동지가 알고 있는 2군데의 지름길로 집을 다녔다. 더군다나 사고 현장의 길은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길이라 밤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길로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상당히 위험한 기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동지가 마니또분식집 근처 노학동에 있는 친구집에 들리지 않은 채 늦은 밤 그 길을 통해 집에 가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친구는 집에 있었다 한다.

이런 사실을 볼때 경찰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애를 쓰고 있음이 드러나고, 타살한 이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곳에 옮겨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덕인(29)

1967. 12. 14. 전남 신안군 출생.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95. 6월부터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1995. 11. 28. 아암도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

사건경위

4급 장애인이라는 힘겨운 신체 조건하에서도 노점생활로 기반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덕인씨는 현정권과 인천시 당국의 대책없는 노점철거에 항거하여 투쟁하다 급기야 그들로부터 살해되었다. 이덕인씨는 인천시가 휴식공간 목적으로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95년 7월 3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장애인 22명, 빈민 20명과 함께 노점을 시작했다.

그 뒤 연수구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점 철거를 지시하고 시의회 철거비 예산으로 2억2천만원이 확정되는 등 노점상들의 생계가 위협당하자 철거 감시용으로 철담망루를 설치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24일 경찰병력과 용역강패 1,500여명이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하자 이덕인씨 등 노점상들은 비상대책위를 열고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시청밖으로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실신했다. 이어 아암도 진입투쟁을 벌였으며 일부는 진입에 성공하고 일부는 연행되었으며 경찰은 소방차를 동원해 망루에 물을 뿌리고 내려올 것을 강요했다. 망루에는 총 28명이 잔류농성을 벌였다.

25일, 협상단 7인이 시의회 신명순 의장 면담, 아암도 노점상의 요구사항을 이해시키고 중재와 아암도 망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중재를 약속받았으며 인천연합 민생민권위원장 정한식 목사님이 아암도를 방문, 중재를 하기 위해 망루노점상들과 만남을 요구했으나 남부경찰서에서 거부했다. 몇시간 후 아암도진입투쟁에 성공해 망루 15미터까지 접근하여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를 했다. 7시 30분경, 이덕인씨와 이석근씨가 망루에서 내려와 탈출을 시도하다 이덕인씨만 내려왔다.

11월 28일 탈진환자 몇 명이 내려오고 망루에서 11명이 농성하고 있던 중 이석근씨가 바닷가에서 최초로 시체를 발견, 옷차림과 턱수염을 보고 이덕인씨로 추측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김선모씨, 이석근씨가 시체를 이덕인씨로 확인했다. 시신 발견시 밧줄로 손이 앞으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양쪽 팔과 얼굴부위에 상처로 간주된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덕인씨의 사체를 인천 소재 세광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옮기고 인천지역 재야단체 비상연석회의에서 이덕인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경찰이 인천 길병원에 2,000명 정도를 투입해 사체를 탈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가족중 형 이덕찬씨를 연행한 다음 부검동의와 입회를 요구하며 경찰이 심한 구타를 했으며 가족들의 부검 동의없이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부검 과정에서 재부검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체를 훼손시켜버렸다. 이로 인하여 유족측은 경찰이 가혹행위 치사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의심, 더구나 이사고에 관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큰 의혹을 낳았다.

의문점

이덕인씨의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문에 대한 증거로는

1) 사체발견 당시 밧줄이 다소 풀어지기는 했으나 두손이 포박된 상태로 묶여져 있었던 점.

2) 최초 발견시 사체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눈위의 열상(뺨겨진 상처) 및 얼굴 부위와 어깨등의 좌상(피멍든 상처)이 존재했던 점.

3) 이덕인씨가 옷을 입은 상태(이석근씨의 진술에 의하면 야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함)로 물에 들어 갔는데도 사체발견시에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사실 등이 있다.

이덕인씨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민중과 빈민들,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이 어찌되건 자신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해하며 그들의 생계마저 포크레인으로 가차없이 짓밟아 가는 김영삼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당국이 노점상들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더구나 망루로 피신한 노점상들에게 물과 음식을 차단시키고 급기야 탈진한 노점상들을 향하여 추운 겨울의 강한 바닷바람에 얼어 죽도록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켜 결국은 이덕인씨를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것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인 것이다.

■ 이재호

1964. 5. 6.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2남 3녀 중 장남)
 부안국민학교 졸업
 부안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을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 표구제작 계통의 회사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
 1988. 1. 협신사 입사
 1989. 10. 29 노조재건 활동 중 피살.

노조재건 활동중 피살되었는데....

지난 89년 10월 29일 0시 40분경 인천 주안4동에서 노조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협신사(액자제조업체, 사장 이회천) 노조원 이재호씨가 등기에 턱을 맞고 숨진채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다투다 사망한 폭행치사사건으로 종결코자 하였으나, 이재호씨가 그간 회사측에 의해 파기된 노조를 재건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다 끊임없는 노조탄압의 협박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채 사망함으로써 동료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경찰에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였다.

당시 나온 경위서를 통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장 이회천은 군인사계 상사로 예편한 뒤 동생이 설립 운영하던 이 회사를 강탈, (쇠사슬로 묶고 폭행하여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함) 8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유급휴일은 3.1절, 광복절 이를 뿐이며 상여금 200%에 생리월차휴가도 전무하고 작업복조차 지급 안함) 이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사장 이회천이 고용한 폭력배에 가까운 관리자들이 서슴없이 폭력으로 응대하는 실정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89년 2월 27일 마침내 노조를 결성,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온갖 폭력을 동원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장이 직접 농성장에 들어와 폭행, 감금, 감시하고 뒷도리를 걷어 허리에 찬 가스총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집에도 가스총이 더 있다. 내가짓 것들 한놈 죽어도 까딱없다. 내가 민정당 부위원장이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야느냐"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리에 겨누기까지 하는가 하면 제2공장 사장 장유환이란 자가 노조사무장을 폭행해 3주간 입원치르게 한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로 마침내 노조간부들을 강제 사직, 부당해고 시킴으로써 노조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재호씨를 비롯한 협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노조 재건의 기치를 치켜들었고 회사측은 다시 탄압의 고삐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호씨 등 노조 재건위원들은 주안노동사목인 '내일을 위한 집'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노조재건방안 상담을 하며 조언을 받아왔고 피살 전날인 10월 28일(토)에도 6시경부터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노조재건 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회사측은 이날 화장실에서 최창욱 생산부장이 이재호씨에게 "같이 살고 있는 임영순, 김도형(노조재건 중심인물들임)이 따로 이사간다는데 이사했느냐"고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날밤 9시 동료조합원 5명과 함께 상담을 끝내고 술을 마시러 가기전에 이재호씨가 동료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회사로 전화를 했다

가 그때까지도 회사에 남아있던 최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이외에 그와 통화, 대화한 사람은 최부장이 마지막임)

함께 상담은 동료 6명과 '내일을 위한 집' 간사 1명이 함께 주안역 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12시 정각경에 이재호가 아무 이야기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고(평소 이재호씨의 주량(소주3병)으로 볼 때 소주 한병 정도로 취할 정도가 결코 아니었으므로 동료들은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음)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 이재호씨와 같이 자취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 늦게 들어온 김도형, 임영순씨 자취방에 경찰이 회사관리자와 함께 찾아와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재호씨의 피살 이후 경찰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회사 동료들만 불러다 요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분명 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 제작시 범인의 복장, 체격, 도주로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불량배와 시비끝에 피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였으며(5m 떨어져 있던 목격자나 인근 음식점, 공업사에서서는 싸움, 저항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함) 가족들에게 피살경위를 설명치 않고 술먹고 죽었다고 하며 사체를 화장토록 유도했고 10월 30일에는 전단 작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재호씨가 입고 있던 피묻은 잠바를 세탁해 버렸다(혈흔, 지문, 시비의 흔적, 피살시 가격 방향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임에도)이는 범죄수사의 상식조차 무시한 잘못으로서 적어도 경찰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리려는 선입관과 예단을 가지고 노조탄압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없다.

한편 회사측은 사건후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바, 상식적으로 피살과 무관할 경우 종업원의 사망시 조의금도 내지 않고 회사측과의 무관함만 강조한 것은 회사측의 관련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뿐만 아니라 고인과 함께 노조재건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고 사표를 유도하였다. 또 한가지 고인의 신원확인의 단서는 당시 입고있던 T셔츠의 흘러쓴 한글자 '협'자 위에 한자 '信'자로 쓰여진 것뿐이며 이것을 '협신'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협신사는 114로 전화번호 문의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어시간도 걸리지 않아 회사측 관리자가 관할 파출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호씨는 면식범이나 계획적인 피살(살해는 목적치 않았더라도 혼내려는)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2월 노조결성이후 계속되어온 무자비한 노조탄압, 그리고 본격적인 노조재건 움직임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특히 공안정국 아래서 자행되어온 정부기관의 불법적 연행과 테러, 구속, 수배, 미행 등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우리사회의 무법천지성을 반증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 이태춘(28세)

1960. 2. 7 부산에서 출생.
 1986. 2. 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86. 3~87. 3. 주식회사 화승 자재과 근무.
 1987. 3. 2 태광고무(주) 무역부 입사.
 1987. 6. 18 6월 민주항쟁의 시위 도중 부산시 좌천동 오버브릿지 밑에서 쓰러진 채 발견.
 1987. 6. 24. 부산시 봉생병원에서 뇌수술하였으나 운명.

“최... 최...”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

이태춘 동지는 1987년 6월 18일 부산 좌천동 오버브릿지 시위에서 전경들이 다연발탄과 직격탄을 쏜 후 오버브릿지 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날 저녁 좌천동 시위는 6월 항쟁 중 부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었고, 발견 당시 상황은 행진 중 전면에 있던 경찰이 갑자기 다연발 탄과 총류탄을 난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밀집하여 있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뒷쪽으로 피하면서 흩어졌고, 사람들이 떠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런 상태였다.

시위대가 지나간 뒤, 오선숙씨 등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4명(남2, 여2)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태워서 대연동 재회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때 후송했던 시민 오선숙씨의 말에 의하면, 이태춘씨는 눈을 가늘뜨게 움직였으나, 여전히 의식

이 없었고 옷에 하얀 최루가루가 뿌옇게 묻어 있었다고 한다.

후송했던 오선숙씨는 병원에서 왜 쓰러져 있었는지 이유를 묻기에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데모 중에 다쳤다고 하면 혹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아마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그 이후 계속 추락이란 말이 나옴)"

그뒤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병원으로 도착, 이태춘 동지를 만나니, 이태춘 동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는 듯 하면서 어머니 손을 꼭잡고서는 "최 최..."라는 말을 안간힘을 다하여 하려고 애를 썼으며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이태춘 동지가 들어오면서 최루탄 가스냄새가 병원에 굉장했다고 한다.

재회병원의 시설미비로 밤 12시경 다시 봉생병원으로 옮겨 신경외과 김호경과장의 집도하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1987년 6월 24일 20:40분경 운명하였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태춘 동지의 증세는 최루탄을 맞고 운명한 연세대 이한열 군과 같다고 수술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병원 원장은 "태춘이는 최루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화를 발각내면서 "이 아주머니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빨갱이가 쳐내려 올러는 이때 그런 유언비어를 하고 다니면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하며,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 친구들이 재회병원으로 가 처음 후송한 사람을 찾아 만나 보기 위해 수납일지를 찾아보니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작성해 놓았으며 후송자들 주소 성명도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뒤에 나타난 후송자는 분명히 수납일지에 적었다고 함.)

87년 6월 25일 부산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부검결과 직접적 사인은 뇌좌상이었고 오른쪽 이마 윗 부분에서 정수리를 거쳐 후두부까지 20.5cm에 이르는 종방향 두개골 골절이었다. 그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일체의 외상이 없었다.

부검후 22:00경 시신을 연산동 시립 부산의료원 영안실로 안치하였다가 1987년 6월 27일 10:00 범일성당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다.

사망 원인 및 의문점

이태춘 동지 사망 후 각 언론에서는 최루탄 파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수에 의한 단순 추락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첫째,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최... 최..."라는 말을 하려고 간절하게 애를 썼으며 둘째, 후송 당시 옷에 최루탄 가스가 밀가루처럼 뿌옇게 묻어 있었으며 셋째, 추락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에 일체의 외상이나 골절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 추락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태춘 동지는 사고 당시 시위대열 앞 부분에 있다가 쏟아지는 최루탄에 맞았거나, 최루탄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다가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

이태춘 동지는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5만원짜리 방에서 월 33만원으로 다섯 식구의 생계를 꾸려왔다. 아버지는 일용노동을 하다가 천공성 심이지장궤양으로 요양중이었으며, 누나는 망인의 학비 보조를 위하여 결혼을 늦추고 공장에 다니다가 동지의 대학 졸업 후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있던 중이었다. 동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감은 물론 6월 민주화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넋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사인은 다시 규명되어야 하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인 최루탄은 추방되어야 한다.

정경식(29세)

- 1959. 12. 15. 경남에서 출생. 삼진중 졸업. 한독직업훈련원(현재 부산기공)에 다니다 1년만에 가정 사정으로 중퇴.
- 1984.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
- 1987. 5. 26. 노조 지부장 선거운동.
- 1987. 6. 8. 실종.
- 1988. 3. 2. 창원 불목산에서 유골로 발견됨.

정경식 동지는 3년동안의 월급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저축할 정도로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했으며 동료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하였다고 한다. 기숙사 생활 중에도 놀러갈 때는 빠짐없이 집으로 연락했으며 월급을 타면 집에 꼬박꼬박 맡기고 용돈을 타 쓸 정도로 성실했다. 정씨는 노동자로서의 의식도 투철했는데 86년 5월에 공

장에서 일을 하다 팔을 다쳐 4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을 때, 문병은 동료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퇴원한 이후부터는 노조를 민주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민주노조 하자는데 의문사가 웬말이나

사건 개요

1) 실종전 대우중공업 지부장 선거관계- 정경식씨 실종 살해사건의 배경
1987년 5월 15일경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관계로 들뜬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노조 지부장 선출은 간선제였으며 선거일은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효영씨가 후보로 나선 젊은층 중심의 민주노조 건설측과 서석교씨(52년생, 수년전에 미국에 가 있다가 노조지부장 선거 전에 귀국하였다 함) 측이 서로 대의원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정경식 동지는 김효영씨를 지지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지지 확대활동을 하는 등 이 일에 대단히 열성적이었다고 한다.

정동지의 실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홍교식씨는 정동지와 입사 동기생이며, 입사후 계속 기숙사의 같은 방을 썼던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홍씨는 김효영씨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또 한사람의 직접 관련자인 이동석씨는 서석교씨 지지활동을 벌였는데, 선거전에 여러번 홍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잠을 자기 도 했다는 것이다.(선거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는 홍씨가 이씨에게 매수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고 한다)

5월 26일 노조지부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서씨가 65로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홍씨가 서씨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동석씨는 노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월 28일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 퇴근길에 정동지는 홍씨에게 "노동자는 노동자 편에 서서 단결하는 것이 옳지 회사편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고, 이동석씨에게 "얼마나 돈을 먹고 회사편을 드느냐"고 말하자 이동석씨가 정동지를 떠 밀었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정동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동석씨의 코에 머리가 부딪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주변 동료들과 패싸움 비슷하게 약간 충돌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씨는 3주 진단을 끊어 창원 경찰서에 정동지를 고소하였다. 이씨는 정동지에게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고, 정동지는 5월 28일 이후 거의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이씨를 보고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실종

6월 8일 정동지와 홍씨가, 이씨가 있는 기숙사(106호)에서 만나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결렬되고 이씨는 15분만에 먼저 떠나고 2시간후 정동지와 홍씨 양인도 기숙사를 나왔다고 한다.(이는홍씨의 증언으로 이에 대한 목격자는 전혀 없음) 기숙사를 나온 후 정동지는 작업복, 운동화 차림으로 우산을 쓴 채 차를 기다렸고, 홍씨는 잠을 잤다고 한다.(후에 공장에서 일했다고 번복)이후 정동지를 본 사람이 없고 6월 9일 동공장 근로자 이춘일씨가 정동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정동지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알려왔다.

이후 정동지의 어머니는 회사와 홍씨를 접촉하며 물어 보았으나 별 대답을 못듣고 11일 창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시킨 뒤 각계에 진정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정동지 어머니는 회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회사 노무부장 상병수로부터 「정이 약을 먹고 죽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9월 27일 정동지의 어머니가 이동석씨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가 「그렇다」고 3번 반복하여 대답하였다. 10월 3일 정동지 어머니와 형이 이씨를 파출소로 끌고가자 경찰이 이씨에게 「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고 나무라며 이들을 쫓아냈다. 이씨는 어머니에게 「회사에 말하면 500만원만 들이면 너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한다.

3) 시신발견-제1차

12월 12일, 창원시 동성동 천주산 관유사 부조에서 벌목중이던 수목 전지사 이용우, 이순우, 강중열, 이명환씨 외 성명불상 1명이 번사체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당시 사체의 상태는 "검은 색 머리카락이 두 개골에 15개정도 붙어 있었으며 농약병은 낙엽에 쌓여 꼭지만 보였다. 시계는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파란판에 좀 두꺼운 세이코였다. 아랫턱 뼈가 두 개골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이빨에 앞니 2개가 있었다. 유골 전체는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뼈는

하얀 색깔인 것으로 보아 죽은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체인 것 같다”고 최초 발견자는 증언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창원 경찰서는 정경식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채 사체 검시를 하고선 검시 결과 두 개골에 흰색 모발이 붙어 있었고 이빨이 없는 상태로 “50세 이상이고, 5년이상 지난 변사체”라고 규정하고 정경식이 아니라며 가매장 시켰다.

이후 가족의 제조사 요구에도 정경식 동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른팔 뼈(정경식 동지는 팔이 골절되어 철사를 박은 흔적이 있다고 함)와 이빨이 없다(처음 발굴자는 분명히 보았다고 함)는 이유로 정경식 동지와 결부시키지 말고 단념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뒤 가족의 끈질긴 주장에 가매장된 사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두 개골의 반정도만 흰 머리카락이 접촉체로 붙인 흔적이 뚜렷하였고, 오른쪽 상완골에 상처가 나 치유된 흔적과 팔목에 쇠를 대었다가 없애버린 흔적이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발견 장소에 흑색머리카락이 한줄 짙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사체 조각흔적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88년 2월 23일 발견한 사체를 정경식의 사체가 아니므로 수사를 종결짓자고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해왔다.

4)시신발견-제2차

1988년 3월 2일 “삼성항공 2공장 옆 야산(불목산)에서 산불 진화중 산불방지 요원이 변사체를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출입증을 주어서 보니 정경식이란 이름이 있어 회사측으로 연락이 와서 전화한다”는 요지로 국민운동 경남 본부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족과 정경식 실종사건 경남대책위 관계자, 경찰, 안기부 검시의사 등이 현장 검증을 하였다.

현장 입구 밑으로는 산불이 전혀 나있지 않았으며, 뼈가 사방에 널려져 있었다. 두개골에서 조금 위쪽으로 팔뼈가 두 개 놓여 있었으며, 그 위쪽으로 밤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고 밤나무 아래 바위 밑에 철심을 박은 팔뼈가 하얀 색깔로 퇴색되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국방색 멜방끈이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씨가 나무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정, 사건을 종결시켰다.

의문점

1. 합의금 150만원이 없어서 비판 자살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

정경식은 2년간 대우중공업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며 800만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싸움의 발단이 노조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우발적인 싸움으로, 정경식이 지지한 민주노조 이효영 후보진영에서 합의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비판 자살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조사이며, 지금은 통장이 유실되고 있으나 예금잔고와 비디오 테이프에 찍혀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반증의 자료이며 검찰의 주장은 억지이며 사건축소하려한것이다.

2. 산화 발생의 의문점

불목산 사체 유골발견은 88년 3월 2일 산화발생으로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 감독원에 의하여 사체도 아닌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3월 2일 이어야 했던가 하는 것이다. 산화발생(산불) 다음날 3월 3일은 천주산에서 발견된 유골(진정인이 자식의 사체를 찾기 위해 연고 없는 사체에 대해 자식사체라고 주장하며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3월 3일 준비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산에 화재가 발생하고 뼈가 산에 뿌려져, 사회여론의 고조로 인하여 유족이 주장한 천주산 사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기자회견을 무산 시키려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하겠다.

3. 출입증 상태에 대한 의문점

산불요원이 출입증을 주워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출입증의 집게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 녹이 슬지는 않겠으나 코팅된 비닐은 자연환경 속에서 햇빛에 노출되어 직사광선을 쬐면 색도 투명해지는 것이 자연법칙인데 9개월간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깨끗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산불이 발생하여 정경식이 당시 출입증을 옷에 부착하고 있었는데 산불로 인해 옷이 거의 다 타 재만남은 그자리 유골위에 비닐코팅하나 손상없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가 유골이 있는 자리에 거저다 놓은 것 같다.

4. 유골발견에 대한 의문점

유골 발견현장은 민가와 100M 거리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밤을 수확하는 곳이다. 사체현장에 이르는 길은 오솔

길로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87년 6월 8일 정경식이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가정한다면 밤 수확시기인 가을과 추석, 설날에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에 의해 충분히 발견되었을 것이며, 이곳에는 밤이 결실되어 사람들이 껍질을 벗긴 흔적과 밤을 따는데 사용한 홀대(밤을따는 도구)도 1개가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친족인 정차식씨가 87년 6월 마을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사방을 수색할때 저기 저들(유골이 발견된 장소)위에서 담배를 피웠던 장소였다. 즉 이를테면 그당시 돌위에서 담배를 피우다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것은 정경식이 이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곳으로 이송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5. 자살현장에 대한 의문점

이곳이 자살현장이라면 유골의 모양이 인체의 구조형태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검안의사의 말이 이유골에는 “동물이 침범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유골이 가로 13M, 세로 8M 이상되는 면적에 방대하게 뿌려지듯 흩어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검안 의사의 한말이 “동물이 침범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말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반증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어깨뼈가 가면 손가락뼈도 따라가야 하는데 잔뼈는 한곳에 뒤섞여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무시한 인간의 소행이라 본다.

6. 목을 매었다는 나무에 관한 의문점

목을 매었다는 끈이 묶여 있는 나무는 직경이 4cm의 밤나무로 정경식이 이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 휘어져 축 쳐져서 발이 땅에 닿거나 나무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 도저히 자살을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끈이 묶인 나무 가지는 혼자 힘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위치해 끈을 묶을 수도 없는 높은 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지에 끈이 묶인 흔적이 남아야 되며, 목인자리가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해 감정을 요구했으나 검찰당국의 명백한 해명이 없었고 며칠 후 경찰에서는 부모의 항의를 받고 가지를 잘라가 버리고 말았다. 이는 증거인멸의 기도에서 행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자연환경에 대한 의문점

목을 매달았다 하는 나무밑에는 목뼈, 어깨뼈 등 수십개의 뼈가 있었으나, 87년 6월 8일 목을 매었다면 심한 부패로 인해 썩은 사체의 육수가 떨어져 땅을 시커멓게 변색(퇴색)시킨다고 하며, 목을 매단 자리의 흙에 대한 감정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여름이면 부패가 심해 사체가 썩어 땅에 뼈까지 다 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면 가을철 낙엽들이 뼈와 옷을 덮고 있어야 하는데 밤송이와 낙엽들이 뼈밑에 깔려있었다. 또한 자연법칙상 사체에서 흐르는 육수가 식물을 말라죽여야 하거나, 성장을 촉진시켜 왕성하게 성장되어 주위의 풀과 많은 차이를 느껴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충분히 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위환경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것 자체가 유골을 유기 했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며 이자리에서 목을 매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8. 사체의 자연노출에 대한 의문점

아래턱뼈에 이빨이 빠져 없었으며 270여일이 지나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빨이 빠진 자리에 이물질이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분명 사체가 밀폐된 장소나 공간(햇빛과 바람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9. 신발의 상태와 발견장소의 의문점

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사체가 부식하면서 그자리에 그대로 떨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짝만 사체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은 대체로 깨끗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였다. 또한 신발 끈은 발등에 끈이 팽조여져 있었고 잡아당긴 끈이 위로 쑥 올라와 있음은 타인이 신발 끈을 잡고 옮겨놓지 않고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한다.

10. 목을맨 끈에 대한 의문점

나무에 매달려 있던 끈은 국방색 멜방끈으로 9개월 동안이나 자연상태에서 햇빛에 노출 되었다면 당연히 색깔이 퇴색되어야 하나 원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산불로 인해 옷가지 등이 불에 다 탈 정도면 나무에 매달린 끈 또한 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이 의혹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11. 목격자가 없다는 의문점

여기서 정경식이 1공장에 들어 갔다가 나갔다고 하나 당사자 이동석과 홍근식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난 사람도 없고 본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인 것이다. 땅속 지하실로 가지 않았다면 왜 본사람 목격자가 사건 당사자 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석이는 유족과 만남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이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진실로 정경식이 자살을 했다면 지금까지 가족과 이사건에 대해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12. 결론

- 1) 정경식 개인 통장에 800만원 저축과 이효영 후보진영에서 150만원을 마련했다.
- 2) 3월 2일 화재발생과 3월 3일 천주산 사체 발견 및 기자회견 준비에 대한 의문점
- 3) 훼손되지 않은 출입증 상태의 의문점
- 4) 87년 6월 8일에 실종되었고 87년 가을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일반인들이 밤들 까먹은 흔적과 왕래가 잦은 곳인데 발견되지 않았던 점
- 5) 동물의 침범흔적이 없고 사체(유골)가 한곳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야 하는데 방대하게 사방에 흩어졌어 발견된 점

- 6) 나무에 흔적이 없고 경찰이 나무를 가족과 협의 없이 잘라버린 점
 - 7) 자연법칙상 사체 주위에 토질 변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 8) 유골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 9) 신발이 같은 장소에 없고 멀리 떨어져 한쪽만 있으며, 신발상태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
 - 10) 나무에 매달린 끈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 11) 실종당일 기숙사에서 들이 만나 나갔는데 목격자가 없다는 점
- 등을 살펴볼 때 정경식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추정되며 타곳에서 이곳에 유기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사건과 87년의 정치상황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타살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다. 87년 6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움직임은 마산, 창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7,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노동현실의 벽을 허물려고 붓물처럼 터져나온 현실을 본다면 노조선거와 관련 고의에 의해서 이건 타의에 의해서 이건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정법영

1977. 청주신학대 입학
 1978. 3. 17.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흥제분, 조광피혁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4개월 간의 단식투쟁
 7. 8.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73년 청주지역에 도시산업선교가 시작될 무렵 중학생으로 사회선교와 현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8년 3월 노동자들은 퇴직금문제로 장기적인 농성을 전개하는 과정이었으며 농민 소작인 중 한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못매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 투쟁하였고 정법영도 같이 투쟁에 참여하면서 경찰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민중생존권 수호를 위한 쫓겨나고 쫓겨나고 술을 113일이 경과되도록 문제 해결이 안되자 심리적 갈등을 겪던 정법영은 정체불명의 친구들을 몇 번 따라다니며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78. 7. 4일에도 정체불명의 친구들과 만난 후 청주 성가의원에 혼자 가서 약을 먹었다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이후 5일간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7월 8일 운명하였다.

[의문의 죽음 사례 4]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시민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의회

▣ 문영수

1953. 11. 10. 출생
 1982. 8. 19.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을 당한 후 1982년 8월 22일 광주 적십자 병원에서 운명.
 행려병 환자로 위장된 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됨.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김광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문영수를 검거하여 역전파출소로 연행했다. 김광호는 피를 흘리며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연행될 당시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다음날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를 발견하여 광주시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시킨 후 광주 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시켰으나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인 행려병 환자로 취급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로 넘겨지고 몇개월간 보관되다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고소장

- 고소인: 춘천시 죽림동 11의 56호 7통 2반 문덕수
 피해자: 문영수(1982. 8.22. 광주적십자 병원에서 사망)
 피고소인:

- 1) 최판석(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 2) 임용남(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월산동 파출소 근무)
- 3) 최병용(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미국이민중이나 현 국내 거주)
- 4) 문규조(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 5) 나택곤(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조사계 근무)
- 6) 김성열(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장)
- 7) 양종호(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원)
- 8) 윤재룡(전남의대 해부학교실 해부학교수)
- 9) 사체해부당시 전남의대학장

상기 피고소인들의 피해자 문영수에 대한 사체유기, 사체부검방해, 사체실습사용, 공문서위조, 지휘감독소홀, 은폐 조작행위 등 위법행위혐의에 대하여 관계 경찰관 등을 고소하오니 이를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사실」

1.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가 피해자인 김광호와 술을 함께 마시다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사건현장에서 검거되어 역전파출소로 연행되어 피해자 김광호는 피를 흘려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고 함. 가해자 문영수는 사건현장에서 연행당시와 역전파출소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 김광호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아무런 부상도 없었다고 하며 건강상태는 매우 좋았다고 증언함.

2. 가해자 문영수는 연행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전남밤(82. 8. 19.) 사건담당형사 최병용의 경찰관 1명에 의해 순찰중 광주시 소재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되었다고 거짓 증언하여 광주시 유동소재 조세현의과에서 응급조치 후 광주적십자 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입원시켜 치료하던중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하였다고 함.

3.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으로 경찰관에 의해 허위조작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사체를 인계하고 사체를 인계받은 전남의대 해부학교실은 그후 몇개월간 보관하다가 학생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함은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러한 피고소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별 혐의내용」

가. 피고인 최판석, 임용남은 역전파출소에 근무하던중 익명의 전화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 문영수와 피해자 김광호를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하였음에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가해자인 문영수는 사건현장에 도착하니 도주하여 문영수를 체포치 못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사건현장인 덕천여인숙에서 체포하였다고 거짓증언함은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행위.

나. 피고소인 최병용, 문규조는 서부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던중 1982년 8월 19일 밤 문영수를 역전파출소로부터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문영수를 광주적십자병원에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된 행려환자하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입원 시켰음.

다. 사건책임자 나태곤은 광주서부경찰서에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된 문영수가 조서를 받았던 담당형사들에 의해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호위 입원되어 사망하였음에도 사체부검실시도 하지 않고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보내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상급책임자로서 상피고인들에 대한 자체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함.

라. 김성렬, 양중호는 문영수의 사체를 부구청장 등으로부터 가매장 사체처리 지시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사체가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임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유가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죄를 범했음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함.

마. 전남의대 해부학 교수 윤재룡(담당교수), 사건당시 전남의대학장은 문영수 사체해부신습 전에 관계기관에 사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및 유가족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사체를 정당하게 관계기관에 인도 교부받아 학생실습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이행치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체를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는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함.

*참고:문영수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을 못취했다 하면서 사망자 문영수의 전과기록부에는 1982년 8월 19일 폭행사건의 죄인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았고 적십자 병원 입원 기록카드에도 본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피해자도 김광수도 '연행당시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문영수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치료비도 받게 해달라는 부탁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증언함.

1987년 9월 12일
고소인 문 덕 수
광주지방 검찰청장님 귀중

▣ 장이기

예비군훈련 중 휴식시간에 현군사독재정권의 탄생과 광주학살에 대하여 연설을 한 뒤 군부대에서 심한 고문을 당

하여 운명하였다.

85. 4. 2. 운명

▣ 김상원(34세)

1957. 5. 7. 출생.
1986. 3. 10.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5. 6.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1990. 12.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김상원은 1986년 3월 10일 저녁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검문에 항변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직할 중앙파출소에 끌려갔다. 경찰들의 무차별 구타로 앞이빨 6대가 부러지고 두부 좌측 피하혈종에 비강내출혈, 좌측 안검부종에 뇌좌상 등 온몸을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식물인간이 된 채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에 의해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되어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철저히하고도 조직적인 은폐아래 중환자실에서 77일간을 신음하다 5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1986년 3월 10일(근로자의 날) 낮 12시경 건강한 몸으로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폭행을 당했던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를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가족들은 무연고자 사건 사고 문의를 했으나 경찰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182번 가출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응급실 및 영안실을 뒤흔던 끝에 86년 4월 14일 사건발생 34일만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상원을 발견했다. 병원측은 기관지를 절개하여 기도에 호스를 연결시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입원하게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인 홍성일 순경에 의해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홍순경을 찾아갔으나 3월 10일 밤 10시 25분경 중앙파출소에서 강성용 순경에게 인수받아 병원에 후송시킨 것 밖에 모른다고 했다. 중앙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해도 아무런 기록조차 남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성과로 가족 입회아래 시경찰국 감찰계에서 4월 17일 조사를 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다.

강성용이가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해 왔을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 한방울 발견치 못했으며 상처하나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 근무일지는 언제 조작했는가? (김재룡 경위)
가족들이 34일만에 피해자를 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아내어 항의하고 간 다음날 86년 4월 15일 정오경 근무일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장 결재는 어떻게 받았는가? (김재룡 경위)
들키지 않도록 하라며 해줬다. (강성용 순경)
홍성일이가 파출소에서 강성용에게 피해자를 인수받을 때 상처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였다. 얼굴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라 시트를 적실까봐 신문지를 깔고 후송했다. (홍성일 순경)

이상과 같은 대답이 나오자 관련 경찰관들이 공문서 위조 및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다 새로운 사실이 제137차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김정길 의원에 의해 폭로 되어 재조사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관련자 처벌도 없이 시경찰국까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가족들은 사건당일 파출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중앙파출소에 있었던 3명의 목격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집단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6년 3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이병호 경장에 의해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던 중 마찰이 있었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파출소를 나오던 밤 11시 20분까지 피해자는 멀쩡했으며 그때까지도 다름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후 관련 경찰관들은 보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방범대기실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때렸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절명직전에 이르자 우연하게도 같은 시각 영등포동2가 명동장 여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

어 있던 정영수를 김상원과 뒤바꿔 놓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지자 모든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서로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987년 7월 23일(사건번호 42982호)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더우기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증빙서류 속에서도 경찰관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에서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 졌지만 불기소 처분한 검찰수사반 소견서에 입을 맞추며 은폐조작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반대로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5년여만에 법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사실을 밝혀내고 민사에서도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의문의 죽음이 최초로 해결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의문의 죽음 사례 5]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군인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 허원근(23세)

1962. 5. 15. 전남 진도에서 출생.
1981. 부산 수산대 입학.
1983. 군 입대.
1984. 4. 2. 운명.

머리 양가슴에 삼각형의 총상

사건경위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 위장대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허원근군(당시 22세, 부산수산대 2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허일병은 중대장 당번병으로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허군의 사망시각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부대측에서는 자살이라고 단정지었다. 총상은 M16에 의해 흉부 좌우측에 2발, 두부에 1발 나간 것으로 판명되었다. 군당국이 발표한 자살 동기는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 생활에 대한 염증'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점

① 살상력이 강한 M16 소총을 위치를 각각 바꾸어 가면서 3번이나 사망자 스스로 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우선 의심스럽다. 부대측에서는 "먼저 허군이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 오른손으로 총 윗덮개 부분을 잡고 왼손 엄지로 격발하여 총알이 간장 중앙 상단부와 횡경막 폐장 하단을 뚫고 등쪽으로 관통하였으나, 당장 자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총구를 밀착하고 왼손으로 총구부분을 잡은 후 오른손 엄지로 두 번째 격발을 하여 탄환이 폐장 하단을 뚫고 겨드랑이 쪽으로 관통하였으나 역시 의식이 남아 마지막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닿는 45°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격발하였다"고 군의관 소견서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M16 소총을 두 발이나 몸에 소고 다시 머리에 정조준하고, 또 그 직전에 정조준을 위한 적절한 자세를 의식하여 취했다는 것은, 아무리 두 번의 격발이 탄환이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관통하여 치명상-즉각 사망할 정도-을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권총이나 단검과 같은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도구가 아닌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M16을 두 번이나 맞은 후에(빗겨나간 것: 스킵치 지나간 것도 아닌) 다시 머리에 대고 쏘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② 부대측의 자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가장 큰 논거가 밀착사격이고 현장에 방어하려는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밀착사격=자살'이라는 데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총구가 피부나 옷에 밀착된다면(타인에 의해) 방어할 것이나, 협박조로 들이대고 사망자가 체 피하기도 전에, 또는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거

나, 가해자가 상급자여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격발할 수도 있다. 실제 83년 9월 20일 19:00경 중대장이 하사의 불순한 언행을 이유로 중대원들 앞에서 M16에 실탄을 장전하고 복부에 대고 위협했다는 사실은(육군 제2621 헌병대 자료에 의함) '밀착사격=자살'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③ 부대측에서는 사망자의 머리에서 바로 50cm앞에 울타리(나뭇가지로 되어 있음)가 있어서 타인이 총구를 들이댈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부대측 말대로 우측 흉부→좌측 흉부→오른쪽 두부로 격발하여 직접적인 사인이 두부총상이라면 사망자는 오른쪽 눈썹위에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후 바로 즉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M16은 총구가 오른쪽 머리쪽을 향한 채 놓여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현장 사진을 보면 총은 보이지 않는다.

④ 사망자의 상처 부위와 그에 따른 탄피, 실탄 수에 대한 군부대측의 발표는 일관성이 없다. 사망자는 3곳에 총상을 입었고, 총성은 두 번 들렸고,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2개뿐이었다. 중대장은 병기계원의 착오로 탄창에 남은 실탄이 13발이라고 잘못 발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대장의 행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장은 사망자가 탄창을 2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병기계를 시켜 사망자에게 탄창 3개를 갖다주라고 했다. 중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가 규정량의 탄창 - 규정량의 탄창은 5개 -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부실에 대한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를 앞에 두고 중대장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나중에 병기계원의 진술에 따르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실탄 1발을 사망자의 곁에 살짝 묻어 두고 왔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중대장의 행위는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대장 말이 처음에 사망자가 2탄창을 가지고 가서 3발을 쏘고 탄창에 11발 약실에 1발 도합 12발이 남아 있는 것은 규정량 5탄창을 휴대하지 않은데 대한 교육부실추궁이 두려워 3탄창을 추가시켰고 당시 이 일을 수행했던 병기계원의 착오로 잔여탄 13발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⑤ 중대장이 사망시간을 10:30→11:00→13:00로 교육시킨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후 사망시간이 9:50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근거가 멀리 철책선을 둘러보던 중대장이 회미하게 들었다는 진술과 상황일지 기록의 일치라는 것인데, 3번이나 수정 교육시킨 중대장의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 중대장의 '밀리서 회미하게 9시반경 총성을 들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100%라 하기 어렵고, 보다 중요한 것은 송기호(당시 사망자와 같은 부대의 근무자)의 진술서가 상황일지의 조작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사망시간 9시 50분 자체가 불확실하다.

(진술서- 당일 16초소 근무중 11번 근무자로부터 총성보고 받고(10시반경) 중대본부 상황병에게 보고, 그 후 중대장 지시라고 홍민표가 중대본부에 내려와 상황일지 시간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이 사실 목격자 많다고 함) 오후 5시경 감찰관이 상황일지 제출을 명령→수행)

또한 9시 50분이 조작된 것이라면 당시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이다. 또한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그 총성이 서방 500여 미터 떨어진 11번 근무자가 총성을 들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컸고 세 번이나 울렸으며, 부대측 주장인 자살이라면 각 총성이 연이어 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제조작을 위해) 그런데 현장에서 중대본부는 30m이고 남방 20m에 주차장이 있는데,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9시 50분경 21번 근무자가 총성청취사실을 상황병에게 보고→미발견"이라는데 이 자체가 송기호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총기사고가 무척 중요한 것인데 3발이나 크게 울리는 총성을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대본부에서 먼저 듣고 즉시(외부 지시로 수색한 것이 아니라)보고하거나 수색하지 않은 점은 의심스럽다. 또한 20m 떨어진 주차장에 아무도 없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중대장은 초소 순시중이었다고 한다. 09:50분경 21초소, 10시 50분경 18번초소로 이동중인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 시각 11번 초소 근무자가 총성을 2번 들었다. 즉, 총성과 사망시간을 변경한 것은 당시 현장에 머물렀던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부대측에서는 '중대장과 갈등'으로 자살 동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중대장으로 부터 직접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비록 중대장의 당면병으로 중대장 명령으로 취침시간을 조금밖에 갖지 못했다고 하나 (중대장의 호통으로 통상 02:00경 취침하여 2시간 근무하여야 하므로 06:00 기상까지 1-2시간 취침했음) 이것이 자살 이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그동안 아무리 수면부족으로 죽고 싶을 정도라 하더라도 따뜻한 음식과 편한 잠자리가 한정없이 보장되는 휴가, 그것도 입대 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루만 더 참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3월 중순경 보직 변경 건의를 했다는 것(중대장이 거절),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교육불성실을 이유로 상관인 상병 이진경이

폭행당한 것(중대장으로부터)으로 인한 강박감이 직접적 자살동기라고 부대측은 파악하고 있으나, 3월 중순은 사건당 일로부터 15일 전이고, 당시 중대장의 이진경에 대한 폭행은 철모로 두부를 1회 구타한 것으로, 사망자를 자살로 몰고 갈 정도의 심한 강박감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⑦ 화약검출 실험을 왜 중대장만 제외하고 실시하였는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가정하에 실시했던 부대원들의 화약검출 실험에서 왜 굳이 중대장만 제외하였는가 하는 점은, 중대장의 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서 :헌병대 자료)과 더불어, 한층 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당시에 훈련을 마치는 병사들에게는 부모와 만나는 면회를 오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만은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회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배제할 수 없는 증거이다. 입대한 지 (83.9.28입대) 6개월이 지난 사망자가, 군대라는 사회의 분위기를 알만큼은 알았을 사망자가, 폭언이나 수면부족, 상관의 자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폭행으로는 아주 경미한 구타를 당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압박감이나 삶의 희의를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총을 세 번이나 모질게 쏘며 죽을 정도의 압박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운 가족을 만나서 입대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극심했다 하더라도 자살을 했다는 추정이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중대장의 가혹행위·폭력·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과 (헌병대 자료참조) 사망자가 중대장의 당면병이었다는 것, 중대장이 총성청취교육을 수차 반복하여 시켰던 점, 화약검출실험을 중대장을 제외하고 실시했다는 점 등은 의혹스러운 부분이다.

※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 것을 진정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함.

■ 이승삼(22세)

1966. 부산에서 출생
1986. 3. 부산전문대 전기과 입학
1986. 12. 16. 입대
1987. 3. 3.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개요

이승삼군은 1986년 12월 16일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87년 2월 2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 공병대에 배치되었다. 부대배치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2월 16일 잠깐 면회를 하였고, 다시 3월 1일에는 외박을 허락받아 같이 밤을 보냈다. 그런데 헤어진지 이틀후인 3월 3일 저녁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승삼군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헌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3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부대 잔류병 2명과 저녁 5시에 하기식을 해야 하는데 이승삼군이 보이지 않아 다른 사병의 협조로 하기식을 마치고 이승삼군을 찾아다녔는데 문이 잠겨있던 중대장실에서 그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발견 당시에 중대장실에는 이승삼군이 난로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꺾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머리와 바닥에는 피가 혼건하였고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헌병대는 이승삼군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이승삼군의 목주반지가 난로위에 있었고, 담배꽂초 3개가 있었으며, 총은 난로 옆에 놓여 있었고, 반항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삼군의 아버지 이두형씨는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강박감이나 감당키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살로 단정한 헌병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헌병대는 애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침 구보시 동료의 부축을 받은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총알에 대해서는 2월 23일 주간 사격과 야간 사격시 실탄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두형씨는 탄피가 한 개라도 없어지면 부대원 전원이 동원되어 그것을 찾아내곤 하는 부대관행을 알고 있었고, 헌병대가 말하는 자살 동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말단 수사관의 수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헌병감, 여야당수 등에게 계속하여 탄원서를 보냈다. 답장이 오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다시 보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몇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다.

특히 이승삼군이 부대생활에서 선배 사병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돈을 빌려달라기도 하고 매점에서 무엇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삼군이 죽던 3월 3일에는 종일 밥도 주지않고 세탁하라, 총기반납하라고 괴롭혔으며 초소 근무도 4시간이나 시켰다. 특히 최규권 일병은 이승삼군에게 군가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기합을 주었으며 안면을 구타하여 안경알이 박살나고 안경 유리가 눈알에 박혔으며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승삼군이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계속하여 탄원서를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두형씨가 여전히 자살사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살동기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눈에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 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의무실에 가지 않고 중대장실에 혼자 찾아가 따듯한 난로옆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기지개를 펴듯 사지를 펴고 죽는 것이 일반적이고, 앉아서 죽는 것은 극소수 수도승이나 동사자 등에서나 발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승삼군의 마지막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눈에는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져 나간 사람이 실탄을 사격장에서 주워다가 자기목에 쏘았다면 폭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총은 난로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승삼군은 M16소총으로 자기 목에 두발을 쏜 뒤 총을 난로 옆에 세워두고 난로가에 앉아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외 사격장에서 실탄을 몰래 주워두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승삼군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타살이 자살로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 박필호(22세)

1966. 출생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228-18 1/4
 1985. 부산진고 졸업
 1986. 부산대 의대 입학
 1987. 1. 30. 입대
 3. 11. 육군 제26사단 의무근무대 배치
 3. 19.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개요

박필호군은 1987년 3월 11일 육군 제26사단 의무근무대에 배치받았으며 동년 3월 19일 아침 6시 20분경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사체는 목부위에서 사상형(대각선)으로 뚜렷한 색흔이 나타나 있고, 목 뒤 정중앙에 매듭자국의 색흔이 뚜렷하며 입을 약간 벌린 상태였고 좌우측 정강이 부분에 3cm가량의 찰과흔이 있었으며 등허리 부분에도 직경 1cm정도의 찰과흔이 있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된 화장실 4번째 변기칸 천정에는 판초우의 끈으로 보이는 줄이 천정보에 묶어져 늘어져 있었는데 지면에서 약 1.5m지점에까지 늘어져 불에 의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한편 같은 날 아침 8시 15분에 전화연락을 받은 박필호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부대에 도착하여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한 부모들은 화장에 동의하였다. 그때 나름대로 각처에 알아보았지만 시체부검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 당시 육군본부에서 부검을 하러 왔지만 믿을 수 없고 부검을 하지 않아도 걸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은 사람의 시체에 하얗게 딱지가 말라 붙었으며, 그 당시에는 군에 벽이 높아 원수를 갚지 못하고 23년간 키운 자식 개죽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말단직 공무원이라 말을 잘못 하면 신상에 영향이 미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남은 두 자식과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화장을 해 버리고 말았다.

2차 조사 때 조사관이 하는 말이 "1년에 400명 가량 자살로 죽기에 국가 재정상 보상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차후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각계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군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의문점

1) 3월 19일 기상뒤인 06시 바로 점호 전에 화장실에서 판초우의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바로 자고 난 후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2) 유서가 전혀 없고 3일후면 가족이 면회하기로 되어 있었다.

3)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다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천정에 끈을 매고 다리를 변기속에 집어 넣어 자살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발을 올려 변기 옆으로 다리를 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목에 난 상처를 보면 줄이 감긴 상처가 3군데나 있는데 필시 이는 다른 사람이 목에 줄을 감다가 생긴 상처이다.

4) 아침 6시에 죽은 사람이 정강이 종아리가 변기에 끌렸다고 하는데 상처에 딱정이가 말라 있었으며 목을 매 자살하면 눈도 좀 나오고 혀 바닥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면사로 죽은 것 같이 얼굴이 깨끗하다. 1차 조사때는 몸이 따뜻하기에 인공호흡을 시켜서 나온 헛바닥이 들어갔다고 했고, 2차 조사 때는 입을 다물어서 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목을 매 죽으면 혀가 나온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리고 2차 조사 때 목부분이 보이지 않는 앉아서 찍은 사진에 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1차 조사때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당시 19일 아침에 죽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고 다리에 딱지가 하얗게 말라 붙어 있었다.

5) 모든 사고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자나 보호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06시에 사고가 났고 당일 오후 4시에 도착했는데 현장보존은 커닝 옷을 모두 벗겨 목욕을 시킨 후 알콜처리까지 끝낸 후였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현장보존을 하지 않았으며 알콜처리하면 피멍이 사라진다는데 왜 알콜처리를 했느냐는 것이다. 분명 구타후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한 것이다.

6) 집에서 연락받은 것은 8시 15분이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부대장은 8시 30분에 출근한다고 한다. 그러면 8시 15분에 부산집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문이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윗상관에게 보고가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주소 및 시신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집으로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이는 필시 사망자가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증거이다.

7) 사망자가 적용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에 부쳤다고 하는데 걸봉에 쓰여진 부대 주소가 다른 이의 필적이 다. 1987년 3월 17일 정확한 시간은 오전 11:00 시경 편지가 왔는데 "가족사진 한장과 부대에서 적용이 힘들다" 부치라는 필적과 부대주소가 망인의 필적이 아니며 16일 부친 편지가 속달도 아니고 17일날 도착했으며 경기도 양주군 이면 최소한 3,4일, 늦으면 4,5일 걸린다. 즉 사망자가 편지를 부치려고 갖고 있었는데 주소를 모르고 있을 때 사망했다는 것이다. 더더욱 주소를 몰라 그냥 부쳤다면 행정실에서 일괄처리할 때 걸봉의 주소도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추신을 쓴 필체와 걸봉의 필체가 다르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망자의 편지를 보관해 두었는데 사망자가 죽자 이를 은폐시키려고 집으로 보내기 위해 걸봉 주소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고 그곳 사병들에게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물어보니까 저마다 다르다는 의문점이 있다.

■ 박상구(21세)

1967. 7. 6. 경남 울산에서 출생.
 1986. 대구공고 졸업.
 하사관 입대.
 1987. 5. 11.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1987년 5월 11일 사망 전보를 받고 부대에 도착한 시간이 16시경이었습니다.

도착 즉시 아이를 보고자 하니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빨리 아이를 보자"고 독촉하니, 식당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를 마치 자기의 부하처럼 호령을 하며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길래, "왜 농약을 먹었느냐"고 하니, 병원에 있는 다른 군인이 '집이 가난하여 공부를 많이 못했다'며 비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안으로 밀어넣은 그때, 시체를 신고 나가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차가 없어서 못 간다며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가 몇대씩이나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것들은 차가 아니고 무엇이냐?” 고 따졌지만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아주 천천히 달리길래 “빨리 가자” 고 독촉을 해도 중대장이 박하사 칭찬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 고등학교도 군대 생활하면서 통신으로 졸업을 했으며, 지금 군생활이 17년째이고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시기이라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2) 병원에 도착하여 영안실에 갔더니 영안실 열쇠가 없다는 말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영안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보니, 오른쪽 귀부분과 얼굴, 몸은 깨끗한데 왼쪽 귀부위와 목, 어깨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가 어찌 몸이 이렇게 깨끗하며,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느냐” 하니, 약물이 목에 흘러서 그렇다고 하기에 “농약을 먹으면 몸 전체에 푸른 반점이 있는데, 목 부분만 변색이 되는가”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 또, 귀와 코구멍에서 피가 나와 있기에 “피가 왜 나왔나” 하니 호스를 넣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와 귀에 왜 호스를 넣어 피가 나오도록 무엇을 하였나” 하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깨에 7-8센티미터의 칼자국이 있어서 나의 엄지 손가락을 넣었더니, 손목 가까이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팔에도 같은 칼자국이 있어서 “웬 칼자국이나” 고 물으니, “혈관이 잘 안 나와서 주사를 놓으려고 그랬다” 고 파견대장인 엄홍만(제37사단 헌병대 군사법원 헌병)이 답변하였습니다.

4)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데, 식도 부위에 엄지 손가락이 마주 찍힌 자욱이 세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은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고 하니 “약을 먹고 답답하니 쥐어 뜯었다” 고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흉내를 내면서, “자 기손으로 쥐어 뜯으면 밑으로 굽어 놓지, 이것은 목을 졸리면서 찍은 엄지 손톱자국이다”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환과 항문쪽으로도 피멍이 들어 있고, 귀에도 두 줄기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파견대장이 하는 말이, “고환에 또 이상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조사했다” 고도 했습니다. 왜 약먹은 사람이 고환이 이상하며, 왜 고환을 조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발로 찾지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5) 시체 부검을 하자고 하니,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파견대장이 말하기에, 이 병원에서 음독 자살이라고 사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탄 곳으로는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빨리 화장을 해야 한다고 부대장이 주장하기에 우리는 군법이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이 죽고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화장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먹었으면 온 몸에 푸른 반점이 생긴다는데 몸과 얼굴은 깨끗하였고 목과 어깨만 진한 잉크색으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입힐때에도 부모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6) 꾸중한 선임하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없다고 하기에 계속 만나기를 욕구하였고 나중에 선임하사가 왔습니다. “얼마나 꾸중을 했기에, 농약을 마시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가” 했더니 선임하사는 “심하게 꾸중도 하지 않았고, 늦게 왔기에 왜 늦었나, 가서 자라고 한 것 밖에 없다. 그런 일로 자살한다면 이 부대에 군인이 남아 있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임하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니, 부대장이 뒤에서 “잘못됐다고만 하면 된다” 며 소리를 지르니 선임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선임하사의 다음 말을 막으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중대장과 탄약 검사원이 “병원비도 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금을 해서 갚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파견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탄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10시간도 안 되어서 60만원이 넘는다면, 또 하루를 더 있으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8) 파견대장이 보호자 도장을 달라기에 상구의 형에게 주었더니, 형을 데리고 가서 화장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황중에 있는 부모에게서 도장을 받아서 자기네 일만 처리해서 자신들만의 안전만 도모한 처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나라에 바치려고 하던 아이였으니, 묘지에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9) 파견대장이 거절하고 탄 곳에 못 가지고 간다기에, 군인이니까 그런 줄만 알고 하자는 대로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우리들 마음에 의문이 가지지 않아 음성 순천향병원 담당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로 약을 먹었느냐” 고 물었더니, 한참만에 “먹었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냄새가 날텐데, 냄새가 나더냐” 고 물으니, “산만 바라보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 고 하기에 ‘농약 냄새가 나는 것 같더니 무슨 말이나, 나면 나고 안나면 아나온 것이지, 나는 것 같더니 무슨 소리냐’ 고 따지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칼자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고 하니 ‘칼자국은 무슨 칼자국이나’ 고 화를 내면서,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를 끌어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주사를 놓으려고 끊었다고 파견대장이 말하더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야 “오, 그렇다” 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어디를 끊었느냐” 고 물었더니 의사는 팔꿈치를 가리키면서 거기를 2-3센치 끊었다고 대답

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인한 상처는 팔꿈치가 아닌 오른쪽 어깨의 앞쪽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었느냐” 고 물었더니,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다” 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사실 다리에도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사는 시체를 보지도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가 사실로 시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였다면 상처난 부위가 어디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대장은 손목을 끊었다고 하고, 파견대장은 여기 어딘가 끊은 것 같다고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들은 개처럼 끌려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을 불러서 결국엔 경찰서에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여자 둘이서 조곤조곤 묻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때문에 담당의사가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약을 먹고 치료하다가 죽었다면,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이지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1) 또, 중대장이 죽은 아이와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사를 놓기 위해 끊었다는데 끊은 부위가 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한 의사가 어디를 끊었는지도 모르고, 같이 있었다는 중대장도 상처 부위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12) 약을 먹었다는 창고에 가 보니,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파견대장이 하는 말이, 진열대 상단에 있는 약을 마시고 세제 칸에 뚜껑과 병을 다시 나란히 넣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격한 중에 약을 먹을 정도에서, 어떻게 약을 먹고 약병과 뚜껑을 세제 칸에 다시 가지런히 놓아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미치겠습니다.

재차 가서 파견대장에게 물어보니, 파견대장이 저만 쳐다보며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3) 파견대장이, 유서가 있다가에 보자고 하니, 유서를 보기 전에 박하사가 교회에 다녔다면서요, 주님께로 먼저 간다고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유서는 조그만 군인수첩에 쓰고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글씨가 같다” 고 혼자말을 하면서 “이 유서가 어머니는 필요 없지” 하면서 자기가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부대장님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선임하사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저는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서의 내용에 대해 의심이 갑니다. 기독교인은, 자살을 하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결코 자살을 할 리가 없고 설사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유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엄마더러 기도해 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기에 자살을 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14) 그 후, 재차 부대에 가서 중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 파견대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파견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 서랍을 뒤적이다가 사병들에게 박하사 유서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병들이 찾다가 없다고 하니, 버렸는가 보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보관한다고 하고는 버렸냐” 고 따지니까 버려도 좋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기장도 달라고 하니, 일기장은 그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서를 볼 때 당신이 일기장하고 대조를 하면서 글씨체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고 하니, 그제서야 “유서는 상부에 보고할 때 서류에 첨부해서 보냈다” 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조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에서 이래도 되느냐” 고 하니, “어머니,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 왔는데, 이제 보니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이 간다” 고 하니, 자신도 짐사라고 하였습니다.

15) 중대장은 병원비가 60여만원이라고 하고, 부대장은 100여만원을 병원비로 주었는데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부하들의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이고,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부대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많은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돈 몇푼을 병원비로 지불한 것은 중요하고, 남의 귀한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와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대장의 책임입니까? 그 자신도 자식이 있겠거늘 어찌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지 군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부대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또 큰 불상사가 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6) 또, 약 먹은 시간이 그들 말로는 20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사가 15분 늦게 귀대하여 꾸중을 했다고 했는데, 30분에 약을 먹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21시 30분이라는 기록이 병원 임상기록에 있었습니다. 몇일 후에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해 달래려고, 이름을 ‘박상구’ 라고 하니, 업무를 보던 아가씨가 “잠시 영안실에

두었다가 나간 군인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인 신명재 하사에게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 고 말하니 아무말도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 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7) 약을 먹은 사람이 목에 목을 졸린 흔적이 있고, 어깨와 팔에 칼자국이 있으며, 귀와 코에서 왜 피가 흘러나 왔으며, 고환은 왜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였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 아들이 죽은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기에 경황이 없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들을 화장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이 어찌 몸바쳐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맺힌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 기록에서 보는 위증자료

1)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박상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고 부대 병원에 이송한 사람이 있고 순천향 병원에서 아들의 사체를 보았는데 현장약도와 현장사진, 검안 사진이 모두가 부대 내의 건물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부대 내에 두고 사진 찍고 검안하고 부모가 부대에 도착 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병원에 입원 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치료하였다면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음 하는 것을 업고 갔다는 진술서 또한 거짓이다.

2) 그때 순천향 간호사의 말이(잠시 영안실에 두었다 나간 군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무슨 조치를 했다는 말은 모두 허위인 것이다,

3)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처음 어머니가 보신 내용과 헌병대에서 침부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인은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느냐 하는 항의를 했는데 5공특위 때 나온 사건 기록에는 천국에 먼저 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서라고 하는 것 또한 조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사체검안 시 조작된 부분이다, 몸의 여러 곳에 칼자국이 있었는데 오른쪽 목부분의 상처가 가장 컸었는데 사체 검안 하는 자들이 흰천으로 가려 놓고 사진을 찍었다면 삼척동자에게 물어 보아도 용납할수 있는 사항이겠는가? 하는 점이고, 다리와 허벅지에 칼자국이 모두 반창고로 봉해져 있었다면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5) 모든 사건이 증거품이 보관되며 소지품 또한 보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의 보관된 피복을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사건은 명명백백해 절걸로 믿습니다, 꼭 죽음 당시 피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 바랍니다,

6) 죽기 전에 부대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사진은 병원이 아닌 부대내의 시설물이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이동(22세)

- 1966. 4. 13. 전남 광주에서 출생.
- 1985. 2. 숭실고 졸업.
- 3. 전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입학.
- 학생운동에 헌신.
- 1987. 1. 휴학, 입대. 육군 군수사령부 제9탄약창 경비중대.
- 6. 15. 총격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커...

사고경위 (군당국의 발표내용)

“사고자 이이동은 군입대전 모친과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부친이 재혼하여 대전에서 탄살림을 차려 이복 동생을 얻고 탄자식을 돌보지 않음을 비판해오다 군복무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살기로 결심(추정.)

1987. 6. 15. 09:00 - 10:30까지 소속대 연병장에서 5분대기조 요원 11명에 포함되어 교육을 마친후, 동일 10:35경 비복장 차림으로 내무반 출입구 앞에서 대공초소 근무를 마치고 온 동료 이병 이인택(21)과 담배를 나누어 피우다가 자기는 시계가 필요 없다며 이인택에게 던져주는 것을 이인택이 군에서는 별로 시계가 필요 없다라며 돌려주자 다시 받아차고 동일 10:50경 영내 중대 피엑스에 가서 섹색이 1개를 사서 먹고 자신의 지급총기(엠16소총, 115372)를 휴대하고 단독군장 차림으로 중대막사로부터 서북방 약 500미터 떨어진 뒷산 3부 능선에 도착. 사고 총기를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페탄박스(높이 40센티)위에 올려놓고 일자 미상경 자신이 미군사격장(소속대로부터 서북방 1킬로미터 위치)에서 습득 소지한 미군 엠16 실탄(W.C.C.)1발을 장전.

총구를 우측두부에 밀착하여 격발 발사됨으로써(사입구 직경 3센티, 길이 5,7,12센티, 사출구 직경 4센티) 두부 관통 총창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이 발로 뛰어다니며 알아낸 사고경위

위에서 밝힌 군수사당국의 사고경위에 따르면 이이동은 불행한 가정환경을 비판, 자살기로 마음먹었다 하나 이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그것은 첫 째로, 이이동 동지는 설혹 가정환경이 불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이동의 대학 친구들의 진술과 그의 편지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이이동 동지가 가정환경을 비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환경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을 마음먹으려면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계기가 없다. 이는 사고 전 마지막 접견 때 보여준 이이동 동지의 활기찬 모습과 누나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잘 나타나고 특히 군수사당국이 마땅한 계기를 찾지 못하자 애인 관계 운운했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 의문을 더하는 것은

㉠ 자살자의 경우 상식적으로 남기기 마련인 유서가 없다. 특히 가정문제 때문이라면 가족에게 어떻게든지 남길 말이 있었을 것이다.

㉡ 추대식 소령과 조금계 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건이 있고 나서 찾아간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런 행동은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들에게 무언가 두려움을 가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1987년 6월 18일 현장 검증에 가족이 참여하였다. 당시 수사관 정진화 상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당일 일정이 09:00-10:00까지 5분 대기조, 11:30분까지 휴식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총정교육이 있어 집합을 시켜보니 이이동이 없었고 이이동의 개인화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부대앞을 수색했고, 다시 뒷산으로 수색대가 나가다가 방위병 봉급점이 부대후문앞 묘에서 “이이동”하고 부르자 500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총성이 들리고 7-8분 후에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먼저 중대원이 32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점심시간내 이이동이 없는 것을 못보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총까지 들고 나갔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권영고 소령과 방호운 군의관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

권소령은 87년 6월 15일 밤(사건당일) 가족이 도착한 마산 육군 통합병원 영안실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 현장에 가보니 이이동이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 그래서 부둥켜 안고 ‘이동아’하고 불렀다”라고 했다.

방호운은 현장검증이 있고나서 영안실에 갔을 때 “그때 가보니 시체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

명했다.
 봉금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권영교와 방효운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고 분명히 진술해 놓고는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러한 군수사 당국의 발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88년 2월 2일 24:00 노용인(동향인 전남장흥, 87년 3월 29사단 상사로 정년 퇴임. 부대근처 마을 통장)을 만나 노용인과 동료였던 이계수(현 보안대 근무)를 통해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용인의 말에 따르면, 이군의 부친이 이계수에게 알아본 결과 이계수의 사정상 직접 나서서 조사하지는 못하고 최초 목격자 봉금점 방위병과 이이동과 가장 친한 동기동료 이인택 일등병을 보안대로 불러 심증을 따보니 "자살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12시와 1시 사이에 산에 올라 간 적이 없다"(즉 점심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됨)고 했다(이에 대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김상원(당시 병장) 말에 따르면 당일(87년 6월 15일) 오전에 10:30까지 5분대기조를 마치고 1시간 휴식 후 점심을 먹고 14:00부터 충정교육을 실시했는데 조금제 대위(경비 2중대 중대장)가 강연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사람 나와라" 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자 이이동 동지를 지목하여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제대위가 분개해서 주먹으로 우측 눈두덩이를 구타,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부동자세를 서있는 이이동 동지의 낭심을 군화발로 구타 실신하자 중대원 중 1인이 이동을 업어 내무반으로 옮겨 한참 후 의식이 회복되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고통스럽게 내무반에서 뛰구니까 조금제 대위가 이윤일(행정병, 병장)을 시켜 업고 중대장이 뒤를 따라 나갔고 그후 28분 정도 지나 총성이 들렸다고 한다.

사건전반에 걸친 의문점

1) 이이동 동지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미지의 총상에 관한 의문.

당국의 발표는 '사입구 직경 3센티, 길이 5,7,12센티, 사출구 직경 4센티'라 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이동 동지의 총상은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눈에 띄게 크다. 사입구는 상처부위보다 총길이 12센티, 사입구 직경 8센티이고 사출구는 상처부위가 총길이 5센티, 사출구 직경 3센티이다.

이는 상식에 어긋난 총상이다. 사입구와 사출구가 바뀌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총기 엠16의 경우는 총알이 회전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항상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군당국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맞추는 인상이 짙다.

2) 이이동 동지의 사망 현장에서 엠16 총기의 위치에 관한 의문.

최초의 증인 봉금점에 따르면 총기는 상자의 바깥쪽에 올려 있었다고 한다. 총기가 처음에는 상자의 바깥쪽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사체에 가까운 안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총기가 상자의 바깥쪽에 있으면 사망자가 총으로 자살을 한후에 거리가 떨어진 상자의 바깥쪽에 총을 놓을 수가 도저히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의도적으로 위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옮겨진 총기의 위치도 사망자가 총기로 머리를 쏘고 총기를 두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 이이동 동지의 앞에 놓여 있는 상자(앞서 말한 총기가 놓여 있는 상자)의 상태가 사진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

첫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가 뚜껑이 덮여 있고 총기도 상자와 직각으로 놓여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의 뚜껑이 열려있고 내용물이 나와 있으며 총구가 이이동 동지의 머리 부분을 향하고 있다. 두 가지 사진중에 어느것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4) 군당국에서 주장하는 '자살 가능한 방법'의 경우에 관한 의문.

군당국에서 이이동씨가 '총구를 우측 두부에 밀착시켜 격발 발사되므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엠16소총의 길이와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길이 등을 볼 때 이이동 동지의 신장이 172센티미터, 팔길이가 92센티미터 정도이며 총기를 상자위에 놓고 총구를 머리에 밀착시킨 후 우측 엄지 손가락으로 자살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군당국의 발표중에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신장 172센티에 팔길이가 92센티이다. 이이동 동지의 신장은 172센티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사람의 팔길이는 신장의 반에 해당한다. 이이동 동지의 경우는 가슴몸통을 포함하여 86센티가 정상이다. 팔길이가 6센티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것은 사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자살한 경우를 만들어 내다보니 그만 팔이 6센티나 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사진에 나오는 총기를 보면 총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안전장치의 '안전, 반자동, 자동' 중에 '안전'에 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국에서 사고 후 안전으로 옮겼다고 해도 증거 보존을 위해 찍어둔 사진에는 사실대로 나와 있었어야 한다. 이는 총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증거 조작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6) 이이동 동지의 낭심에 붉은 타박상과 우측 주변의 파란 멍, 두정부의 상처에 관한 의문.

가족이 군당국에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민원 회신에서는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음낭은 사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 표면이 변하며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군당국이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은 겨우 그럴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이전에 타박상 등 충격을 받은 부위가 가장 먼저 변색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왜 언급이 없는가?

7) 다음으로 평소 이이동 동지는 시력이 나빠 안경이 없어 거동이 불편하였을 정도인데 사건현장에는 안경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이동 동지가 500미터나 되는 산길을 안경이 없이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8) 이이동의 사망 사진은 그 원인이 머리의 관통상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M16소총으로 Th았을 때의 총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2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첫번째가 파열상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며 그 두번째가 총상 출구가 두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정연관(22세)

1966. 12. 26.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서 태어남.
1973. 3. 2.	철암국교 입학.
1978. 2. 13.	대구남산국교 졸업.
1981. 2. 4.	대구경구중 졸업.
1984. 2. 10.	포항 대동고 졸업.
1986. 5.	군입대.
1987. 12. 4.	사망. 대전국군묘지에 안장.

군부재자 투표후 사망

지난 87년 12월 4일 고참에게 기합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발표된 육군 8350부대 군수지원단(경기 벽계읍 소재) 정연관 상병(당시 22세)의 시신은 벽계화장터 11번 코너에서 화장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당시 부재자 투표 관련설로 정치사건으로까지 비화됐던 정군 사망 사건은 정군을 구타, 사망케한 백모병장(22)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정군의 어머니 임분씨(54)는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고 끈기있게 "정군이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어 맞아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군의 장례식 때도 임씨는 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생매장하라고 부르짖었다. 임씨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연관을 묻는 행위는 생매장과 마찬가지로"면서 "현정권의 탄생과 관련되어 죽은 연관은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눈감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정군이 사망한 87년 12월 4일은 부재자 투표일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원은 싸리작업을 마치고 6시 반경 부대로 복귀, 부재자 투표를 마쳤다. 취침점후 백병장은 금속수리반 9명을 기상시켜 침상에 일렬로 세워 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차례로 가슴을 쳤다. 각각 2대씩이었다. 정군은 왼쪽에서 6번째 위치해 있었다. 백병장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칠 때쯤 정군을 여러 명이 일으켜 세웠다(백병장의 진술). 5일 새벽 5시 경북 대구에 있는 집으로 사망통고가 전화로 왔다. 통고를 받고 깜짝 놀란 가족들은 "사망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부대 관계자는 "와 보면 안다"라고 답할 뿐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당일 급히 부대에 찾아가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군관계자는 "사흘 후에 훈련이 있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장 백재운이 내무반에서 사병들을 9명 침상끝에 세우고 두 차례나 돌아가며 주먹으로 구타하여 정상병이 관물대에 머리를 받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6일날 아침 일찍 부대

에서 부검하자고 제의했으나 가족들은 거부하고 정상병과 함께 구타를 당한 동료들과 면담하기를 희망하여 상병이 호택외 동료 1명과 면담했다. 가족들은 "정상병이 사망할 때 직접 목격 했느냐?"라고 묻자 흥분한 상태에서 "당시 보초서기 위해 나가려고 했는데 총에 실탄만 있었으면 모조리 갈겨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대답을 듣자 "연관이가 매를 많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 때 "정상병은 태권도가 3단이고 유도로는 할 줄 알아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구타로 죽지는 않았는데 연관을 왜 죽였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군의관이 "정상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잘못 없는 연관을 왜 죽였느냐. 연관을 죽인 사람을 데려와 사과시키라."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병장 백재운, 병장 김용음, 병장 홍의표, 하사 김택기, 중사 배재천, 대위 김관식 등 피의자 6명 중 하사 김택기만 불구속되고 나머지 5명은 구속되어 수감돼 만나볼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으니 그냥 화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후 병장 백재운은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으나 나중에 감형되어 18개월 징역을 살고 출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한달 살고 모두 나왔다.

백병장은 심문에서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군을 폭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 개요 설명에서는 백병장이 정군을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신체검안서에는 사인의 정황으로 보아 전혀 그렇지 못했다. 목뒤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또한 양 엉덩이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등 뒤에도 청자색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 두 차례에 의한 주먹질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씨는 자신이 복역중인 백병장을 면회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면회를 거부한 사실과 피해자 가족인 자신에게 백병장의 재판 일자를 통보해주지 않은 경위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제대한 사람으로부터 정군이 야당 찍어 기합받다 사망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재운이 시신 앞에 서서 절을 하자 "연관을 왜 죽였느냐. 개인 감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아니오" 소리만 3번 반복해서 대답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이 이루어졌다. 심문에서도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군을 폭행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개요 설명에 의하면 백병장은 정군을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검이 끝난 후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시키기 위해 들어갈 때 어느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정상병 죽음은 세 계 만방에 알리도록 영광된 죽음이다." "정상병은 하늘 나라에 갔을 것이다."라는 말과 "영결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줄 것이다."라는 말을 어느 장교가 했다. 화장을 하고 뼈를 가지고 정상병이 근무하던 부대로 이동하는데 수십명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 있으면서 격렬하게 오열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에서 마련해 준다는 차를 거부하며 봉고승합차에 유족이 있는데 동료들이 "체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오열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상병이 단순히 기합을 받다 한 두차례로 얻어 맞은 구타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상병은 군대에 가기전 대구 계명대 앞에서 선물의 집을 운영하며 변혁운동도 하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비록 군대이지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후보에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한 댓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는 반드시 선거와 관련되어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평소 애썼던 일기장에 틈틈이 부대에서 느낀 점을 기록해 둔 것을 동료인 병장 홍의표가 소지하고 있다. 면서 "정상병이 각오를 단단히 했다"고 증언하며 제대 후 병장 백재운과 병장 홍의표의 동료 1명이 사회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가족이 제대한 당사자들을 만나 보았으나 저마다 말이 틀렸다. 유족이 백병장을 상대로 녹음을 해 둔 정확한 근거로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부터 방위병까지 전부 불려 기호 1번 노태우 후보를 찍으라. 몇 %까지 나오지 않으면 지휘관들이 옷을 벗는다."는 교육을 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은 임씨는 정군이 죽은 후부터 하루도 집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현정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연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면 이땅이 민주화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 임분이 어머니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 호소문

국회의원 여러분!

자식은 죽어 부모 가슴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곱디 곱게 키워온 내아들 조국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자랑스러워 하더니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마음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아들의 죽음이 끝수에 사무쳐 공스러운 저의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할지 모라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해 박종철군과 이한열군의 희생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던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찾았는가 했더니 또다시 12월 4일 부재자 투표후 내자식

마저 죽어버린 살인극을 연출한 피도 눈물도 없는 군부 만행과 조작을 밥먹듯이 해대고 있는 독재에 대항해서 민중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려하니 악명높은 살인마 백골단과 전경을 앞세워 부정, 부패, 은폐, 조작을 하고 있는 높고 두터운 독재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 국방부장관 정호용이 내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왜곡 보도하였음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 과연 A.T.T 혼련을 앞두고 기합을 주던중 가슴 두대 맞아 죽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내아들의 시신동쪽 전부가 청자색으로 병들어 있었고 다른 몇군데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간 의사가 와서 부검을 한다고 해놓고 사복한 군의관 양두익이가 부검한 것은 우리 유족의 눈가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의관의 부검서가 원발성 쇼크사라고 허위조작하였으나 부검서의 내용만 보아도 가슴두대 맞아 죽은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 의사가 부검한다고 속이고, 쇼크사 또는 심장마비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 군부재자 투표를 한후에 죽었다는 사실과 여러명의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구가 고향인 놈이 왜 1번을 찍지 않았느냐, 빨갱이나, 간첩이나 하면서 마구 때렸다는 말과 그 이후 지금까지 5개월동안 수차례 내아들 부대에 찾아가서 대대장과 중대장 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도 않는 말들을 해대며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모든것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을 찍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야당을 찍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아들의 죽음이 현정치에 어두웠던 엄마의 눈을 새로 뜨게 하였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죽음 그 진상을 밝혀서 생의 가장 왕성한 나이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한때를 보내는 군인들이 군부독재정치의 제물이 되고 그 죽음이 억울하게도 조작되는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설움과 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부모가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군복무중에는 강제로 집권여당을 찍어야 하는 억울함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기위해 이 죽음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심판하여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가 으레히 집권여당의 고정표로 생각해 왔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고 더이상 권력에 억압되어 자신들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는 달리 영똥한 곳에 투표하는 일이 없어 대한의 젊은이들이 상관들만이 아닌 야당측 참관인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져서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하여 보다 완전한 민주국가를 이룩해가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이 몇명인데 그 수많은 표를 방치해야 합니까. 새로이 당선되신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의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되고 입이되고 소리가 되어 거듭거듭 이 일을 국회에서 거론하여 올바른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군에서의 죽음은 개죽음이라하여 자식을 군에 보내며 그 아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는 세상을 바로잡아 나라를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도 늘상 유난히도 환하게 웃던 제 아들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진정 조국을 위해 죽었노라고 이 어미 조국 대한민국에 아들을 바쳤노라고 그 영광된 이름으로 이 한을 조금이라도 씻어 내릴수 있도록 이 어미의 피맺힌 호소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故 정영관 상병의 어머니 임분씨

▣ 박종근(26세)

1963.	경주 출생.
1982.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입학.
1988.	졸업. 입대전까지 대구 불교 한방병원에서 2달동안 인턴.
1988. 5. 9.	방위병으로 입대.
1988. 6. 27.	중앙동 중대본부에 배치(50사단 1220연대 1대대 소속)
1988. 8. 1.	동사무소 창고에서 분사체로 발견됨.

보약상납 거부하다가?

사건개요

박종근씨는 방위병으로 중대본부에 근무하면서 중대장과 헌병대 파견대장으로 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근무상 피로움을 받아오던 중, 1988년 8월 중대본부에 출근하여 아침 8시 5분에 동 사무소 창고에서 화

재와 함께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며 현재 경찰조사 및 군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는 분신자살로 인한 기도 질식사로 종결되었다. 당시 가족과 동국대 경주분교 동문들의 이의 제기 및 군수사기관의 허구성을 유인물을 통하여 폭로하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했으며 9월 5일자로 예비군 중대장은 해직 통보되고 중대장과 파견대장은 군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사건경위

박종근이 한의대를 졸업하고 6년제 대학을 나왔으니 가정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한 중대장 이이규와 현병대 파견대장 권안정은 사고발생 1주일 전부터 녹음이 든 보약을 지어오라고 무리한 요구.

박종근은 백만원이 넘게 드는 보약을 지어 오라는 중대장의 무리한 요구에 고심하던중 가정형편상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편지로써 전달하였음.

중대장은 87년도 예비군 훈련 계획표를 종근이가 잃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워 궁지에 몰아넣고 그 문서를 찾지 못하면 남한산성에 갈지도 모르고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고 협박과 함께 보약 상납 요구.

7월 30일(토) 박종근,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여 줄것을 간청하였으나 중대장은 낚시간다하여 만나주지 않음.

종근이가 가지고 있던 돈 10만원과 어머니가 5만원 합계 15만원을 준비하여 집안사정을 말하려 31일 저녁 중대장 집으로 찾아갔으나 중대장은 낚시가고 부재중이라 15만원을 전해주지 못하고 돌아옴.

8월 1일 7시 50분 박종근 출근코자 집을 떠남.

7시 55분 동사무소 도착.

8시 5분 동사무소 창고화재.

8시 15분 동사무소직원 남순옥 화재신고.

8시 18분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

8시 19분 소방차 현장도착.

박종근이 8월 1일 출근하여 8시경 매일 2회 실시하는 동사무소 주위청소를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정문으로 들어와 동사무소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창고 문을 연후 다시 동사무소에 열쇠를 놓고 간지 7 - 8분후 평 소리와 함께 동사무소 창고에 화재가 남.

동사무소 당직자 배기학씨가 창고쪽으로 갔으나 이미 연기에 휩싸였으며 바로 동사무소 여직원 남순옥에게 화재 신고 하라고 지시후 다시 창고쪽을 가서 문을 발로 살짝 밀어보니 박종근의 다리가 보임. 조금후 소방차 도착.

8시 27분 화재조사관, 머리를 문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는 박종근을 끌어냄.(이때 등에 불붙음)

시체는 경주 기독병원에 안치되고 사건발생 3시간후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8월 2일 사체의 형태에 의문을 품은 한 의학과 친구가 영안실에 잠입하여 사진 10여장 찍음.

8월 3일 오후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사체 옮겨 백부, 불교한방병원원장 참관하에 부검실시(30 - 40분 소요, 기도, 배, 낭십, 뇌) 기도에서 쌀알만한 분진발견. 뒷머리에 직경 5센치 멍.

8월 3일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체인도 거부, 군당국 행정체제 앞세워 부모동의없이 화장.

군수사당국 발표

군수사기관에서 8월 3일 염세주의적 성격, 여자문제와 가정문제로 인한 분신자살로 종결.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으로 여론화에 밀려 군수사기관에서 재 조사에 착수, 8월 29일 중대장과 현병대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

9월 5일 중대장 직위 해제.

조사은폐의 가능성

박종근의 사망직후 현병대 파견대장이 박종근의 가족의 허락이 없이 박종근의 집을 뒤져 중대장에게 보낸 편지와 비망록에 메모한 쪽지 등 사건진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감.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이 창고에서 시체를 끌어내었을 때 그때 상황은 시체가 머리쪽이 문을 향하여 반듯하게 누워 있다고 주위사람에게 증언하였으나, 최초 목격자 동사무소 당직자인 배기학이 경찰 진술에서 문쪽으로 다리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민주당 조사시 소방서 화재 조사관에게 그 당시 목격 상황을 조사하던중 배기학의 진술에 맞추기 위하여 문에서 다리가 보였다고 번복 진술함.

군 기관에서 상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자살로 처리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혹이

있음.

가) 분신 자살을 할 경우에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으나 조용히 비명만 지르지 않고 누워 죽어있던 점.

나) 분신 자살일 경우 몸을 뒤척이므로써 안경이 떨어져야 할텐데 사진을 보면 안경테가 녹아 눈부분에 안경이 녹아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누운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

다) 분신 자살시 뜨거워서 손으로 벽을 꺾게 되므로써 손톱과 손 끝부분이 상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손끝이 깨끗한 점.

라) 분신 자살시 몸이 고르게 타야 하는데 등뒤에는 타지않고 시체 끌어낼 때 불이 붙어 약간 탄것으로 보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큼.

마) 부검당시 머리뒤에 5센치 가량의 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직전 구타 당했을 가능성.

바) 어려운 가정속에서 독자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적 처지와 함께 그 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적 생활을 하였으며 하등의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함.

사) 유서나 기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전혀 없는 점.

경찰 조사자료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단이나 평민 조사단 기타 가족이 경찰조사의 내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함. 민주당 조사시 조사계장에 자료요청하여 경찰조사에서의 모든 조사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었음.

경찰조사 관계자료는 두께 약 1.5센치 되는 자료가 있었으나 화재원인을 조사한 목격자와 기타 관련자의 진술내용과 사진들 그리고 군기관에서 보내준 부검결과 자료가 있었음.

부검결과 내용에는 분신으로 인한 이물질의 기도 질식사로 되어 있으나 기도에 있는 이물질은 계속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경찰에 있는 조사자료의 복사를 요청하였더니 다음날 수사과장에 보고하고 복사해 주겠다고 승락해서 9월 5일 경찰서에 들렀으나 수사과장이 부재중이라 복사를 못하고 귀경.

민주당 인권국 본 사건 담당자의 의견

본 사건은 군수사기관에서 이미 주대장과 현병파견대장을 구속조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사인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

군수사기관에서의 조사이었기에 군 내부에서의 모든 사항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물질이 끼어 질식된 점으로 보아 분신당시 평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중에 떠 있는 분진이 호흡기에 끼었을 것으로 보임.

분신당시 이물질이 기도에 끼인 점으로 호흡은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기절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됨.

■ 박성은(22세)

1969. 12. 10.	광주에서 출생.
1985. 2.	광주 동성중 졸업.
1989. 2.	광주 농업고 졸업.
1990. 4. 9.	방위병으로 입대.
5. 24.	의문의 죽음을 당함.

고교시절부터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며 의식을 키워왔고, 방위군무 중이었던 90년 5월 사망 직전에 쓴 일기에는 "오월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적기도 했다. 제31사단 사단직할 11병참선 경비대대에 배치된 그는 부대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과 군부대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주일 가량 부대 내에서 모종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후 외출하였으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가 5월 24일 새벽 5

시 40분경 거주지인 광주 중앙교회내 유치원 놀이터에서 어머니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 이후 5월 15일 작성한 문건이 모두 분실되었고, 부대에서 일주일 이상을 억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노철승(23세)

1965. 3. 5. 출생
1983. 광주상고 졸업.
1987. 3. 1. 의문의 죽음을 당함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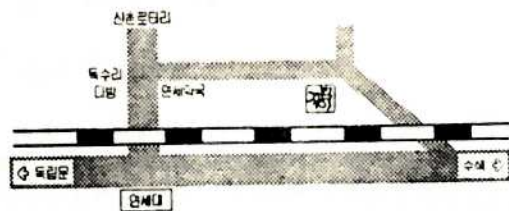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1985년 6월 26일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무선통신사 면허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로 차출되어 근무 중 상급자들로부터 기합, 구타 등으로 다리를 다쳤기에 86년 4월 19일 수도통합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1986. 11. 14. 광주 병원으로 전원 치료중 1987. 2. 15. 수도방위사로 원대 복귀하여 87년 3월 1일 8시 50분에 특정지역(청와대 뒷산) 삼일초소 남방 405미터 지점에서 총탄 2발을 머리에 맞고 사망하였다고 함.

의문점

1) 노철승의 형 노찬승이 조선대학교 철학과 4년 재학중 1985. 5. 10. 군에 입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에 서 3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어서 노철승군은 신원이 부적합한데 특수부대내에서 근무하면서 형과 내통(편지를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임) 한다고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1987년 원대 복귀시 집에서 약 5만원의 돈을 소지하고 바로 특정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유품에 돈이 전혀 없었음. 사체부검시 하체에 모세혈관 파열상이 심함. 사망 후 유서가 발견되지 않고 제대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1987년 3월 1일 6시 30분-8시 30분 사이 초소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 정태영을 1987년 3월 25일 면담하여 죽은 경위를 물어보니 "뒤에서 총소리가 나서 죽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으며, 그러면 죽은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물으니 안 가 보았다고 하였고, 육군 제8010부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고 의문점이 많아 동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의 행적을 알기 위해 내무반 동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소관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음.

2) 사체처리 등의 요청서에 의하면 총탄 두발을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2 자동소총으로 총알 두발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두발 나간 점도 의심스러우며, 총탄 삽입구가 이마이고 총알이 나간 곳은 뒷목 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총을 들고, 즉 위로 들고 쏘았다는,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자제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활/문/외/장/기

지킴이 김 영 희



전화 : 02-324-4550(전송공금)
팩스 : 015-8322-8892

여럿이함께 제품·참교육 제품·개량한복과
T·단체복 주문제작 해드립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밝히는 5공정권의 인권유린 실상!

5공 반국가단체 조작사건
아람회 오송회 한울회 수기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 '아람회' 김난수 대위 등의 진실과 '오송회' 교사들의 교육자적 양심, '한울회'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종교적 양심에 대한 재평가를 역사에 묻고 있다.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 지음

값 7,000원

살림터 (121-23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4-20
전화 : 3141-6553~4
전송 : 3141-6555

의롭고 밝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민족의 진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쓴 메시지!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추천사 중에서

5, 6공 잔재를 청산하는 지금 시기에 아람회를 비롯한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책으로 나온다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살아 있는 증언이 많이 나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길 바란다.

-김상근(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 책의 발간은 오랜 세월 묻혀 살아야 했던 진실을 밝혀, 불행했던 과거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인권 피해자들의 고뇌에 찬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인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일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업입니다.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역사의 심판은 이제부터다. 더욱이 신군부 반란집단의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진 고문으로 짓겨진 몸과 마음을 가진 이들일수록 자신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니,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분노에 치달렸을 당사자들의 울골은 목소리에 다함께 귀기울여 마땅하지 않은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여럿이 함께

모든 사람의 품을 찾아 민족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빛깔

사람의 피부에 어울리는

한나라한겨레의 멋이 담긴 품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20-170) 대표전화 : (02)362-4468 전수 : (02)362-2169

부산점 (051)63-6777 안동점 (0571)55-0974 서울 강남구청점 (02)3443-8447 인사동점 (02)770-5458 서울대점 (02)884-8521 연대점 (02)324-4550 신촌점 (02)334-8588 경기 수원점 (031)47-4080 일산점 (0344)979-3738 성남점 (0342)731-6146 대구 경북대점 (053)959-5226 부산 부산대점 (051)512-2200 전남 목포점 (052)221-1399 전주점 (056)1748-0335 경북 경주점 (054)211-1111

충청도 청주점 (043)271-1111 대전점 (042)257-0781 충청권 (02)745-6196 제주점 (064)2-8835

경남 창원점 (055)271-1111 광주점 (062)227-5430 광주여고점 (062)223-0375 전북 덕진점 (0652)253-2996 통영점 (0652)87-1002 울산점 (052)211-1111 남원점 (067)133-6560 충남 천안점 (041)271-1111

MSB MSB

주소지	242	주소지	242
내용	9/16/15	내용	9/16/15
비행시	5.18광복절기념과 기념선 발송 등 기념 기념선인물원화 등 기념	비행시	5.18광복절기념과 기념선 발송 등 기념 기념선인물원화 등 기념
내용	민족민주역사 - 6546영 (아산점) - 민사의 기념선 발송 기념 - 기념선 발송 기념선 (아산점) - 법의선나 의문사 (이원점)	내용	민족민주역사 - 6546영 (아산점) - 민사의 기념선 발송 기념 - 기념선 발송 기념선 (아산점) - 법의선나 의문사 (이원점)
비행시	민족민주역사. 기념선. 의문사. 의문사 기념선 발송을 위한 기념선 발송 기념선	비행시	민족민주역사. 기념선. 의문사. 의문사 기념선 발송을 위한 기념선 발송 기념선
주소지	AR	주소지	AR

민족민주역사. 기념선. 의문사.
의문사 기념선 발송을 위한
기념선 발송 기념선